

사만다
사회·문화
모의고사

2026 사만다

사회·문화 만점에 다가서기

모의고사

목차

[부록] 6·9월 모의평가 심층 분석

01 6월 모의평가 분석	007
02 9월 모의평가 분석	027

[사만다 모의고사 Final]

사만다 모의고사 Final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정조준하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모든 문항을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신규 출제하여 최근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독해력을 요구하는 사례 문항의 약진, 도표 문항 난도의 전격적 상향, 연계 교재 학습의 중요성 대두 등 9월 모의평가의 특이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만다 모의고사 Final을 통해 사회·문화 만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합리적으로 어려운, 균형 잡힌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스무 문항의 N제로 전략하지 않도록 문항별 난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세트별 문항 유형(사례, 퍼즐, 도표) 간 난도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개념 학습과 문항 풀이 연습이 적절히 이루어진 상태라면, 어느 회차든 30분 안에 모든 문항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출을 딛고, 기출 너머로 가는 모의고사

사만다 모의고사는 최근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충실히 반영하되, 거기에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아직 출제되지 않은 내용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형태로 가공하여 문항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문항들을 접하면서 해를 거듭하며 변화하고 있는 '평가원스러움'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3. 의도를 짚고, 방향을 제시하는 풍부한 해설

사만다 모의고사의 해설은 선택지별 정오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항이 어떤 의도 아래 구성 되었으며 풀이를 위해 요구되는 사고의 흐름과 행동 요령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그리고 주요 문항에 대해서는 핵심 개념에 대한 보충 설명과 참고 자료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학습의 폭과 깊이를 더합니다.

[부록] 복습 교재

복습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모의고사 3회분의 문항들을 주제별로 재배열하였으며, 문항별 난도 정보를 함께 수록하여 문항의 난도와 자신의 학습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이 반복적으로 틀리거나 풀이에 어려움을 겪는 문항을 중심으로 학습 취약 지점을 점검하여 봅시다.

[Co:Re 사회탐구 연구소 콘텐츠 소개] * QR코드를 스캔하면 도서 소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1) Cement N제

- 1) 2025학년도까지의 사만다 콘텐츠 문항 중 우수 문항 수록
- 2)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신규 문항 수록
- 3) 의도를 짚고, 방향을 제시하는 풍부한 해설



2) 사만다 모의고사 시리즈

- 1) 합리적으로 어려운, 균형 잡힌 모의고사
- 2) 기출을 딛고, 기출 너머로 가는 모의고사
- 3) 의도를 짚고, 방향을 제시하는 풍부한 해설



3) 6·9월 모의평가 심층 분석

- 1) 합리적으로 어려운, 균형 잡힌 모의고사
- 2) 기출을 딛고, 기출 너머로 가는 모의고사
- 3) 의도를 짚고, 방향을 제시하는 풍부한 해설



○ Co:Re 사회탐구 연구소 소개

Co:Re 사회탐구 연구소는 여러분과 함께(Co-) 수능 사회·문화 고득점을 위한 핵심(Core)을 문항의 형식으로 반복(Re-)하여 훑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콘텐츠로 단련된 수능 사회·문화 풀이의 코어 근육을 수능 시험장에서 마음껏 뽐내시어 원하는 성적을 안정적으로 얻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Co:Re 사회탐구 연구소 출판 일정

- 5월 : Cement N제 개념편, 사만다 모의고사 Season 1
- 7월 : Cement N제 도표편, 사만다 모의고사 Season 2
- 9월 : 사만다 모의고사 Season 3
- 10월 : 사만다 모의고사 Final

○ Co:Re 사회탐구 연구소와의 소통 창구

- 1) 아래 QR코드를 통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시거나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저희 연구소와 콘텐츠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2)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저희 콘텐츠에 대한 리뷰를 남겨 주세요! 리뷰를 남겨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체험단 선발 및 콘텐츠 질문 답변 등의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 콘텐츠 정오 관련 공지사항

- 1) 본 콘텐츠의 정오표는 시대인재복스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오표를 업로드한 경우, 인스타그램 계정 및 카페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 2) 본 콘텐츠에 관한 오류 사항 제보는 아래 QR코드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



오류 제보



사 회·문화 만 점에 다 가서기
모의고사 Final 부록

6 · 9월 모의평가 심층 분석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등급컷

1등급	48점	2등급	44점	3등급	40점
-----	-----	-----	-----	-----	-----

빠른 정답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1	⑤	2	6	⑤	3	11	③	2	16	①	2
2	①	3	7	⑤	2	12	③	3	17	①	3
3	④	2	8	②	3	13	②	2	18	③	2
4	⑤	3	9	②	3	14	②	3	19	④	3
5	④	2	10	⑤	2	15	⑤	3	20	③	2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번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타의 설매를 끄는 ㉠루돌프 이야기는 순록의 붉은 코를 재미있게 표현한 상상력의 산물이다. ㉡순록의 코에는 모세혈관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먹이를 찾는 감각과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순록을 유목하는 사람들은 순록의 붉은 코가 ㉣짜짓기 시기에 상대를 유인하는 신호로 쓰인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불가치적이다.
 ② ㉡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과 같은 현상에 비해 ㉢과 같은 현상은 특수성이 강하다.
 ④ ㉡과 같은 현상에 비해 ㉣과 같은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
 ⑤ ㉢과 같은 현상과 ㉣과 같은 현상은 모두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심층 분석]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정답] ⑤

[Comment]

✓ 평소에도 해당 주제에서 출제되는 문항들처럼 매우 낮은 난도로 출제되었다. [정답 풀이]의 **지름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였더라도 정답 선택지 속의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라는 ‘특징’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같은 시험의 10번 문항(자료 수집 방법)과 16번 문항(사회 변동 이론)도 **자료 분석의 정확성**이 정답 선택에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자료 분석]

루돌프 이야기가 순록의 붉은 코를 재미있게 표현한 것(㉠), (순록을 유목하는 사람들이 순록의 붉은 코가) 짜짓기 시기에 상대를 유인하는 신호로 쓰인다고 추측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이다.

순록의 코에 모세혈관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 (순록이) 먹이를 찾는 감각과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다.

정리하면, ㉠, ㉢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 ㉡, ㉣과 같은 현상은 자연 현상이다.

[정답 풀이]

⑤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은 모두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지름길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은 모두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으므로, ㉡, ㉣과 같은 현상이 각각 무엇이든 해당 선택지의 내용은 옳다.

[오답 풀이]

- ①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고, 자연 현상은 불가치적이다.
 ②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자연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자연 현상은 특수성이 약하다.
 ④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번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의례는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때 구성원의 결속을 재확인시켜 준다. 예컨대 장례는 사회 구성원이 애도를 표현하고, 유족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의미를 지닌다. 애도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 행위가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적 규범에 의한 행위이다.

<보기>

- ㄱ.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ㄴ.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ㄷ.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고 본다.
 ㄹ.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심층 분석]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

[정답] ①

[Comment]

✓ 평가원이 사회 실재론의 관점에서 자료를 작성할 때는 뒤르켐과 뒤르켐 학파의 이론 및 저작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본 문항도 그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보인다. 본 문항의 자료는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의 자료와 내용이 유사하기도 한데, 아마 해당 두 문항의 자료는 동일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을 것이다.

참고

즐거움 축제가 아닌, 재앙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목적을 지닌 슬픈 기념식도 있다. 이런 종류의 예식을 속죄 의례라 부를 수 있다. 장례식은 속죄 의례의 대표적인 예다. …(중략)… 이러한 표현들은 인간적 슬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집단이 부과한 의무다. 공동체의 손실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구성원 모두에게 보여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가치와 소중함이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

- 뒤르켐,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

[자료 분석]

애도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 행위가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적 규범에 의한 행위라고 보는 필자의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정답 풀이]

- ㄱ.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ㄴ. 사회 실재론은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오답 풀이]

- ㄷ.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 아니라 사회 명목론이다.
 ㄹ.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 아니라 사회 명목론이다.

관련 기출 1 |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부족의 성인식이 행해지는 장소에서는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일종의 전류가 발생한다. 사람들이 울동에 맞추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발생한 전류는, 사람들을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외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힘은 집합적인 감정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일체감과 소속감을 확인한다.

<보 기>

- ㄱ.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 ㄴ.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 ㄷ. 개인은 오직 사회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 ㄹ. 사회 현상은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관련 기출 1 | 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번

(가), (나)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갑국은 을국을 식민 지배하며 갑국의 종교와 의복을 을국 국민에게 강제하였다. 그 결과 을국 전통 의복은 갑국의 것으로 대체되었고, 현재는 박물관에서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종교의 경우, 을국의 문화 복고 운동의 영향으로 을국 전통 종교가 갑국 종교와 결합하여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다.
- (나) 병국을 침략한 정국은 포로로 잡아온 도공에게 도자기 제작을 강요하여 획득한 병국 도자기 기술을 널리 활용하게 되었다. 정국은 무국에 도자기를 수출하였는데, 도자기 포장지에는 정국 고유의 독특한 화풍이 담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무국 화가들은 자신들의 화풍에 이를 접목하여 새로운 미술 사조를 탄생시켰다.

- ① (가)에서는 내재적 요인으로 인해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 ② (나)에서는 자극 전파로 인해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 ③ (가)에서와 달리 (나)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 ④ (나)에서와 달리 (가)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심층 분석] 문화 변동의 양상과 대응

[정답] ④

[Comment]

- ✓ 응시자의 절반 정도가 틀린 문항으로서, 이번 학년도 6월 모의평가 비(非)도표 문항 중 최고 오답률 문항일 것으로 추정된다. 오답 중에는 ②, ⑤번 선택지의 선택 비율이 높았다.
- ✓ ②번 선택지는 (나)에서 '자신들의 화풍에 이를 접목하여'라는 표현의 잘못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자극 전파의 사례로 착각하였을 때 고를 수 있는 오답이다. '접목'이라는 표현은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 문항의 자료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번 문항의 자료에서도 문화 융합을 묘사하는 데 활용되었던 바가 있다.
- ✓ ②번 선택지는 자극 전파와 문화 융합의 개념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였을 때 고를 수 있는 오답이기도 하며, 작년에 출제된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문항의 ③번 선택지와 유사하다.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문화 접변의 요인)인 자극 전파는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문화 접변의 결과인 문화 융합은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기존의 두 문화 요소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다.
- ✓ ⑤번 선택지는 (나)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고 잘못 생각하였을 때 고를 수 있는 오답이다. '침략', '강요'라는 표현에 사로잡혀 (나)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강제적 문화 접변은 정복 등과 같은 상황에서 강제력에 기초하여 지배적 입장에 있는 사회의 문화 요소가 피지배 사회에 강제적으로 이식되어 나타나는 문화 변동이므로, 피지배 사회의 문화 요소(병국의 도자기 기술)가 지배적 입장에 있는 사회(정국)에 전해진 것은 강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문항의 자료 내용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 ✓ 본 문항은 선택지가 (가), (나)라는 '사례' 단위로만 다소 단조롭게 구성되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선택지에 '국가', '시점' 등을 섞는 식으로 문항 난도를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자료 분석]

(가)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통해 을국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강제적 문화 접변의 결과 문화 동화가 나타났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가)의 세 번째 문장을 통해 을국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접변의 결과 문화 융합이 나타났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나)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정국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접변이 나타났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나)의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통해 무국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접변 결과 문화 융합이 나타났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풀이]

④ (나)와 달리 (가)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내재적 요인이 아니라 외재적 요인으로 인해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 ② (나)에서는 자극 전파가 아니라 직접 전파로 인해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 ③ (가)와 (나)에서는 모두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 ⑤ (나)와 달리 (가)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나지 않았다.

●○○○○

관련 기출 1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

표는 문화 접변의 결과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구분	A	B
의미	(가)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로 흡수되어 정체성을 상실하는 현상
사례	온돌을 사용하던 우리나라의 난방 방식과 서양식 주거 문화의 실용적 요소가 접목되어 바닥 난방식 아파트가 만들어짐	(나)

- ① A는 B와 달리 외래 문화의 유입에도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된다.
- ② A와 B의 구분 기준은 '외래 문화의 강제적 이식 여부'이다.
- ③ A, B 모두 외래 문화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 ④ (가)에는 '서로 다른 문화가 한 문화 체계 안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이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는 '우리나라에 고추가 유입되어 백김치 대신 빨간 김치가 보편화됨'이 들어갈 수 있다.

●●●○○

관련 기출 2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번]

A~C국에서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식사 도구로 수저를 사용하던 A국에서는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이웃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나이프와 포크도 식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 B국의 군인들은 야외 훈련 중 철제 투구를 이용하여 음식을 끓여 먹었던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형태의 냄비를 만들어 조리 도구로 사용하였다.
- C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였던 외국인들이 즐겨 먹던 통조림 고기를 자국의 전통 요리에 접목하여 만든 새로운 음식을 즐기게 되었다.

- ① A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B, C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 ② A, C국에서는 직접 전파가, B국에서는 자극 전파가 나타났다.
- ③ A, B국에서는 자발적 문화 접변이, C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 ④ A, B국은 C국과 달리 문화 변동 과정에서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 ⑤ A, C국에서는 B국과 달리 외래 문화와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났다.

[정답]

관련 기출 1 | ①

관련 기출 2 | ⑤

관련 기술 3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갑국에는 400여 종의 지역 전통주가 있었다. 갑국을 지배하게 된 을국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자 갑국의 전통주 제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자국의 재료를 들여와 직접 술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을국으로부터 독립한 현재까지도 갑국의 전통주는 문헌에만 존재하고 있다.
- (나) 병국 근로자들은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할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 전통주를 즐겨 마셨다. 병국으로 대거 귀화한 정국의 근로자들이 최근 이 전통주에 자신들이 정국에서 들여온 약재를 섞어 마시기 시작했고 효능이 알려지자 병국의 주류 회사가 이 술을 '○○약주'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내 상품을 판매했다.

- ① (가)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의 결과로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② (나)에서는 발명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③ (가)와 달리 (나)에서는 자극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④ (나)와 달리 (가)에서는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문화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정답]

관련 기술 3 | 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4번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공 지능 기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인공 지능 기술의 수용 여부는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인공 지능 기술을 '위험한 경쟁자'로 보던 초기와 달리 '독특한 비서'로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널리 활용될 것입니다.



인공 지능 기술의 등장은 사회가 그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공 지능 기술은 특정 직업을 사라지게도 하지만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창출하여 전체 사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인공 지능 기술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인공 지능 기술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 ① 갑의 관점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을의 관점은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행위자의 능동성을 강조한다.
 ④ 을의 관점과 달리 병의 관점은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본다.
 ⑤ 병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심층 분석]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정답] ⑤

[Comment]

✓ 각자 다른 관점을 취하는 세 인물의 대화형으로 자료가 구성된 쉬운 문항이다.

[자료 분석]

인공 지능 기술의 수용 여부는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에 달려 있다고 보는 갑의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인공 지능 기술은 전체 사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보는 을의 관점은 기능론이다.

인공 지능 기술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났으며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보는 병의 관점은 갈등론이다.

[정답 풀이]

⑤ 거시적 관점인 갈등론과 달리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답 풀이]

- ①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②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③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행위자의 능동성을 강조한다.
 ④ 기능론은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본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5번

다음 글에 나타난 갑국의 ‘스케이트보드 문화’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국의 스케이트보드 문화는 파도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서핑을 할 수 없을 때 육지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바퀴 달린 보드를 고안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1950년대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1970년대에는 공격적인 스케이트보딩을 선보이는 팀이 등장하고, 펑크 록 음악과 결합하여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형성되었다. 스케이트보더들은 공공장소에서 스케이트보딩을 금지하는 정부의 규제와 위협하고 난폭하다는 기성세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스케이트보딩을 지속하였다. 1990년대 이후 스케이트보드는 대중 매체에 의해 소개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스케이트보드 문화는 스케이트보드 패션의 유행, 스케이트보드 관련 TV 프로그램의 선풍적인 인기,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등으로 인하여 모든 세대가 즐기는 문화가 되었다.

<보 기>

- ㄱ. 1950년대에 반문화였다.
- ㄴ. 1970년대에 하위문화였다.
- ㄷ. 1990년대 이후 대중문화의 상업성을 비판하는 상징으로 여겨졌다.
- ㄹ. 하위문화가 주류 문화로 변화한 사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심층 분석] 현대 사회의 문화 양상

[정답] ④

[Comment]

- ✓ 정답을 골라내기 어렵지 않지만, 자료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정 문화의 등장이나 위상의 변화가 다루어지면서 선택지에서도 ‘시점’이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문항도 유사 유형으로 출제되었던 바가 있다.

[정답 풀이]

- ㄴ. 1970년대에 갑국의 ‘스케이트보드 문화’는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면서 정부의 규제와 기성세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반문화였다.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속하므로, 1970년대에 갑국의 ‘스케이트보드 문화’는 하위문화였다.
- ㄹ. 1950년대와 1970년대에 갑국의 ‘스케이트보드 문화’는 하위문화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갑국의 ‘스케이트보드 문화’는 모든 세대가 즐기는 주류 문화가 되었다. 따라서 갑국의 ‘스케이트보드 문화’는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변화한 사례이다.

[오답 풀이]

- ㄱ. 1950년대에 갑국의 ‘스케이트보드 문화’는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하위문화이지만, 반문화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ㄷ. 1990년대 이후 갑국의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대중문화의 상업성을 비판하는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기출 1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945년 이후 침략국이자 패전국인 독일이 취한 태도는 망각이었다. 독일 사회는 전쟁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공적 의례를 하지 않았다. 전쟁의 상처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1950년대에도 지속된 ㉠‘침묵의 연합’이라는 사회 전반적인 풍토에 균열이 생긴 결정적 계기는 전후 세대의 등장이었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학생 봉기는 전쟁 희생자로 자신들을 포장해 온 부모 세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전쟁에 대한 죄의식의 부재를 공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냈다. 전쟁의 기억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투쟁의 양상을 띠며 심화되었다. 당시 젊은 세대가 공유했던 ㉡‘집합적 죄의식’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적 의례의 중심 서사가 되고 대중문화의 소재로 빈번히 사용되는 등 독일 사회의 지배적인 기억 문화가 되어 갔다.

<보 기>

- ㄱ. 1950년대 독일 사회에서 ㉠은 하위문화이다.
- ㄴ. 1960년대 후반 독일 사회에서 ㉡은 반문화의 성격을 띤다.
- ㄷ. ㉠은 ㉡과 달리 독일 사회의 지역 문화이다.
- ㄹ. 지배적인 가치에 도전하는 문화가 주류 문화로 변화한 사례가 나타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관련 기출 1 | ④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임.) [3점]

○ 각자 배정받은 문화 이해 태도의 특징을 두 가지씩 작성하시오.

구분	문화 이해 태도의 특징
갑	A 1.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2. 문화 간 우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다.
을	B 1. 각 사회의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본다. 2. (가)
병	C 1.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2.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교사

병은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옳게 작성하였고, 갑과 을 중 ① 한 명은 한 가지만 옳게, 나머지 한 명은 모두 옳지 않게 작성하였습니다.

<보 기>

- ㄱ. ①은 '을'이다.
 ㄴ. B와 달리 A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ㄷ. C에 비해 B는 타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ㄹ. (가)에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심층 분석] 문화의 이해

[정답] ⑤

[Comment]

✓ 사실상 이번 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유일한 퍼즐 문항인데, 6월 모의평가의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 굉장히 무난하게 출제되었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인지적 착오로 A, B를 반대로 파악했다면, ㄴ, ㄷ 선택지의 정보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오답을 골랐을 수 있다. 이렇게 인지적 착오로 오답을 고르도록 유도하는 퍼즐 문항은 202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연달아 출제되었기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자료 분석]

갑~병이 작성한 특징이 각 태도의 특징에 해당하는지를 표(자: 자문화 중심주의, 사: 문화 상대주의, 상: 문화 상대주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작성한 특징	자	사	상
갑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	×	○
	문화 간 우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다.	○	○	×
을	각 사회의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본다.	×	×	○
병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	○	×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	×

(○: 해당함, ×: 해당하지 않음)

교사의 평가에 따르면, 병은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옳게 작성하였으므로, C는 자문화 중심주의이고, A, B는 각각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이다.

위 표에 따르면, A가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무엇이든 갑은 한 가지 특징은 옳게,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옳지 않게 작성하였다. 한 가지만 옳게 작성한 한 명(㉠)은 '갑'이고, 모두 옳지 않게 작성한 나머지 한 명은 '을'이다.

을은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옳지 않게 작성하였으므로, '각 사회의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는 B의 특징이 아니다. 따라서 B는 문화 상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정리하면, A는 문화 상대주의, B는 문화 상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주의이고, (가)에는 문화 상대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풀이]

- ㄷ. 자문화 중심주의에 비해 문화 상대주의는 타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ㄹ.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가 아니라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가)에는 문화 상대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가)에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가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풀이]

- ㄱ. ①은 '갑'이다.
 ㄴ. 문화 상대주의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관련 기출 1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임.)

<형성 평가>

○ 제시된 '대답'에 맞게 빈칸을 채워 질문을 완성하시오.

대답	대답에 맞는 질문	채점 결과
예	A는 B에 비해 (가) 이/가 높은가?	①
아니요	B는 A에 비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구분 이/가 명확한가?	1점

* 교사는 완성한 질문별로 채점하고 제시된 대답에 맞게 질문을 완성한 경우는 1점, 틀린 경우는 0점임.

<보 기>

- ㄱ. A는 B에 비해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 정도가 크다.
 ㄴ. (가)에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들어간다면, ①은 '1점'이다.
 ㄷ. ①이 '0점'이라면, (가)에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관련 기출 2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기능론과 갈등론 중 하나임.) [3점]

<확인 평가>

○ 제시된 '진위 판단'에 부합하도록 빈칸을 채워 진술을 완성하시오.

진위 판단	진위 판단에 부합하는 진술	채점 결과
참	A와 달리 B는 (가) 이/가 개인적 성취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0점
거짓	B와 달리 A는 (가) 이/가	①

* 교사는 완성한 진술별로 채점하고 제시된 '진위 판단'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완성한 경우에는 1점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함.

<보 기>

- ㄱ. A는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ㄴ. B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ㄷ. (가)에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한다.'가 들어간다면, ①은 '0점'이다.
 ㄹ. ①이 '1점'이라면, (가)에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가 들어갈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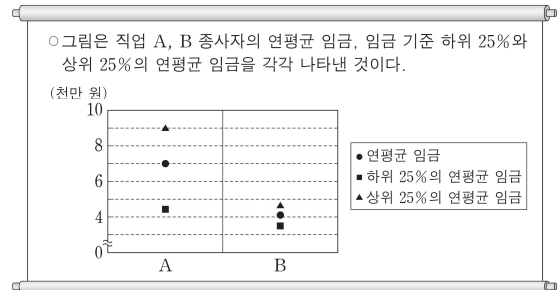
[정답]

관련 기출 1 | ①

관련 기출 2 | ④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7번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직업은 B 직업에 비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오랜 기간의 기술 숙련을 요구하므로 연평균 임금이 높습니다.



B 직업의 연평균 임금이 A 직업보다 낮은 이유는 사회의 지배 계층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B 직업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 ① 갑의 관점은 사회적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로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본다.
 ② 을의 관점은 사회적 희소 자원의 균등 분배가 인재를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본다.
 ③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본다.
 ④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⑤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사회적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을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

[심층 분석]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정답] ⑤

[Comment]

- ✓ 개념 문항인 본 문항의 특성상, 갑, 을의 관점을 파악하는 데에 도표 자료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본 문항의 자료 제시 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도표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표를 읽는 방법 정도를 숙지하여 둘 필요가 있다.
- ✓ 본 문항의 도표 자료에 따르면, '직업별 종사자의 연평균 임금'은 A 직업보다 B 직업에서 낮으며, 갑, 을의 발화는 여기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런데 본 문항의 도표 자료를 바탕으로는 '동일 직업 종사자의 연평균 임금의 분산도'가 A 직업보다 B 직업에서 작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 ●, ■가 서로 방향으로 퍼져 있는 정도가 A 직업보다 B 직업에서 더 작기 때문이다.

[자료 분석]

직업 간 연평균 임금 차이를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 차이와 기술 숙련에 요구되는 기간 차이로 설명하는 갑의 관점은 기능론이다.

직업 간 연평균 임금 차이를 계층 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을의 관점은 갈등론이다.

[정답 풀이]

- ⑤ 갈등론과 달리 기능론은 사회적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을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

[오답 풀이]

- ① 사회적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로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② 사회적 희소 자원의 균등 분배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③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본다.
- ④ 갈등론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증시한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8번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영화 ○○에서의 열연으로 ㉠ 남우 주연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 ㉠ 아역 배우 시절부터 저를 위해 헌신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예술고등학교에서 만나 극단 생활을 하며 함께 꿈을 키웠던
 ㉢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저를 믿고 응원해준
 ㉣ ☆☆팬클럽과 변함없이 제 활동을 지원해주는 ㉠□□기획사 식구들,
 이 상은 우리가 함께 받는 상입니다. ㉤ 시청자 여러분, ㉥ 가족과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 ① ㉠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 ② ㉡, ㉢은 모두 성취 지위에 해당한다.
- ③ ㉡, ㉢은 모두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 ④ ㉢은 비공식 조직, ㉣은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 ⑤ ㉤은 2차 집단, ㉥은 1차 집단에 해당한다.

[심층 분석]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정답] ②

[Comment]

- ✓ 오답 중에서 ①번 선택지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역할에 대한 보상이나 제재'라는 표현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음을 간과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역할은 '사회가 한 개인에게 부여된 지위에 따라서 요구하는 일정한 행동 방식'이고, 역할 행동은 '개인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나름의 방식으로 취하는 실제 행동'이다. 사회적 반응으로서의 보상이나 제재는 개인이 수행한 어떤 행동에 대해 부여되므로, '역할에 대한 보상이나 제재'라는 표현은 성립하지 않으며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제재'라는 표현만이 성립할 수 있다.
- ✓ ⑤번 선택지는 '사회 집단의 정의'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선택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택지 구성상 ②번 선택지가 너무 확실한 정답이라 ⑤번 선택지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 집단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집요하게 묻는 문항이 출제되면 오답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회 집단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7번 문항도 참고하여 학습하자.

[정답 풀이]

- ② 아역 배우(㉠), 아내(㉢)는 모두 개인이 의지나 노력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성취 지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갑이 남우 주연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 ③ △△예술고등학교(㉡)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지만, □□기획사(㉣)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 ④ □□기획사(㉣)는 공식 조직에 해당하지만, ☆☆팬클럽(㉤)은 비공식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가족(㉥)은 1차 집단에 해당하지만, 시청자(㉤)는 사회 집단이 아니므로 2차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기출 1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7번]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영화제에서 ㉠가족 희비극 ‘○○○’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는 ㉡빈곤층에 속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웃기면서도 슬프게 다뤄 ㉢평론가 협회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감독 갑은 시사회장에서 주연 및 조연 배우뿐 아니라 ㉣보조 출연자들 그리고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 작품은 표준 근로 계약을 준수하며 제작되어 화제가 되었는데 방송 작가 ㉥노동조합은 이 소식을 전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상 직후 갑에게는 다수의 ㉦대학 연극영화학과 및 영화 동호회 등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보 기>—

ㄱ. ㉠은 ㉠과 달리 2차 집단이다.
 ㄴ. ㉡은 ㉡과 달리 사회 조직이다.
 ㄷ. ㉢, ㉣은 모두 관심사나 목표를 공유하는 자발적 결사체이다.
 ㄹ. ㉢, ㉣은 모두 공식 조직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관련 기출 1 | ③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연구자 갑은 고령층의 인간 관계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갑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 고령층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갑은 ㉠65세 이상 고령층 남녀 1,000명을 연구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문항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 시간, ㉡가족, 친척, 친구 등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친밀도(5점 척도), ㉢온라인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과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친밀도(5점 척도) 등이 포함되었다. 갑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자 을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을은 노인 복지관을 방문하여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10명, ㉥활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1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을은 두 달에 걸쳐서 1인당 2회 이상 이들을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이 과정을 녹음하였다. 조사 내용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인간 관계의 의미, 인간 관계 형성의 양상,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에 따른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 관계의 변화 등이 포함되었다. 을은 ㉦녹취한 자료를 해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 ①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이다.
 ② 갑의 연구에서 ㉡, ㉢은 모두 종속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③ 을의 연구에서 ㉤은 실험 집단, ㉥은 통제 집단이다.
 ④ 갑의 연구에서 ㉢ 단계, 을의 연구에서 ㉤ 단계는 모두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허용된다.
 ⑤ 갑의 연구와 달리 을의 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하여 수행되었다.

[심층 분석]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정답] ②

[Comment]

-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래 10년 넘게 등장하지 않은 세트형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하지만 개별 문항의 유형이나 난도에는 특이점이 없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이와는 다른 주제 조합의 세트형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기에 대비가 필요하다.
- ✓ 오답 중에서는 ③번 선택지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료에 '교육', '프로그램' 등이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실험법을 연상하면 안 된다.

[정답 풀이]

- ② 갑의 연구에서 ㉠, ㉡은 모두 종속 변수인 '인간 관계'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이 아니라 '고령층'이고, 갑의 연구에서 ㉠은 표본이다.
- ③ 을의 연구에서는 실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을의 연구에서 ㉡은 실험 집단이 아니고, ㉢도 통제 집단이 아니다.
- ④ 갑의 연구에서 ㉢ 단계(양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 단계)와 을의 연구에서 ㉣ 단계 (질적 연구에서 자료 해석 단계)는 모두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 ⑤ 갑의 연구는 양적 연구로서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하여 수행되었고, 을의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하여 수행되었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

다음 연구에서 갑, 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고령층의 인간 관계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갑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 고령층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갑은 ① 65세 이상 고령층 남녀 1,000명을 연구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문항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 시간, ② 가족, 친척, 친구 등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친밀도(5점 척도), ③ 온라인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과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친밀도(5점 척도) 등이 포함되었다. 갑은 ④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자 을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을은 노인 복지관을 방문하여 디지털 기기 ⑤ 활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10명, ⑥ 활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1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을은 두 달에 걸쳐서 1인당 2회 이상 이들을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이 과정을 녹음하였다. 조사 내용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인간 관계의 의미, 인간 관계 형성의 양상,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에 따른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 관계의 변화 등이 포함되었다. 을은 ⑦ 녹취한 자료를 해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 ① 갑과 달리 을은 기존 연구 동향 파악에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② 갑과 달리 을은 표준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③ 을에 비해 갑은 연구 대상자의 반응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④ 을과 달리 갑은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확보하기에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⑤ 갑과 을은 모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층 분석] 자료 수집 방법

[정답] ⑤

[Comment]

-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래 10년 넘게 등장하지 않은 세트형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하지만 개별 문항의 유형이나 난도에는 특이점이 없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이와는 다른 주제 조합의 세트형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기에 대비가 필요하다.**
- ✓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였더라도 정답 선택지 속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이라는 ‘특징’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같은 시험의 1번 문항(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과 16번 문항(사회 변동 이론)도 **자료 분석의 정확성이 정답 선택에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 ✓ ③번 선택지에서 의도된 바는 ‘자료 수집 방법 간의 비교’일 것이다. 하지만 “을에 비해 갑은”으로 시작하는 선택지 자체는 ‘인물 간의 비교’를 나타낸다. 사고와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허접한 문장이다.

[자료 분석]

갑은 문헌 연구법과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관련 연구를 검토”가 문헌 연구법에, “설문 조사를 실시”가 질문지법에 해당한다.

을은 문헌 연구법과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를 검토”가 문헌 연구법에, “이들을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이 과정을 녹음”이 면접법에 해당한다.

[정답 풀이]

- ⑤ 문헌 연구법, 질문지법, 면접법은 모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오답 풀이]

- ① 문헌 연구법은 기존 연구 동향 파악에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 ② 질문지법은 표준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다.
- ③ 질문지법에 비해 면접법은 연구 대상자의 반응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 ④ 질문지법도 문헌 연구법도 실체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확보하기에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이 아니다.

●○○○○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사

〈자료 1〉에서 〈자료 3〉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 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자료 1〉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의 위협을 후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어야 하는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다.

〈자료 2〉 무한할 것 같았던 에너지 자원은 미래에도 우리 사회가 현재의 경제 성장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았다.

〈자료 3〉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인해 발생한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는 다음 세대로 살아가야 할 터전의 소실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이다.

- ① 개별 국가의 자율성 강화
- ② 신기술 개발을 위한 초국가적 대응
- ③ 미래 세대의 삶에 대한 관심과 배려
- ④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공존의 문화 구축
- ⑤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의 강화

[심층 분석] 현대 사회의 변화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정답] ③

[Comment]

- ✓ 평가원 시험에서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을 통해 처음으로 출제가 이루어진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주제의 문항으로서, 해당 기출 문항과 유사한 유형 및 난도로 출제되었다.

[정답 풀이]

- ③ 〈자료 1〉에서 〈자료 3〉은 각각 ‘전쟁과 테러’, ‘자원 문제’, ‘환경 문제’라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가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미래 세대의 삶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

관련 기출 1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행 평가 보고서 내용 요약』 ○○모둠

○ 조사 자료

1) 전쟁터에서 방치된 채 죽어가는 부상자를 구호하고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 조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유럽 각국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국제기구를 설립한 A

2) 알래스카 지역의 회색 고래 등 지구적 차원의 멸종 위기 동물 보호를 위해 여러 국가와 기업,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환경 보존과 생명 존중을 실천한 환경 단체 B

○ 조사 자료 1)과 2)를 통해 공통적으로 도출한 결론: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 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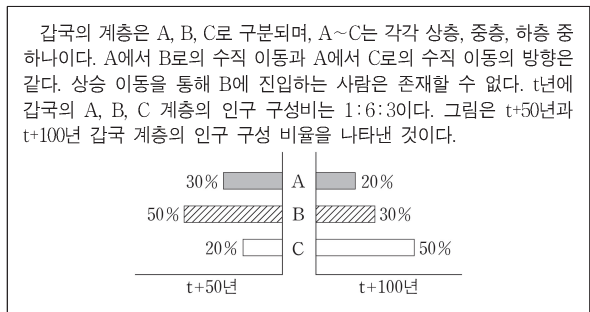
[교사 평가란]
적절한 사례를 조사하여 결론을 잘 도출했습니다.

- ①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을 줄이는 것
- ② 전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는 것
- ③ 과학 기술 발전의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것
- ④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여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 ⑤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정답]
관련 기출 1 | 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t년에 중층 인구 비율은 하층 인구 비율의 2배이다.
- ② t+50년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 ③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는 t년보다 t+100년이 작다.
- ④ t년은 폐쇄적 계층 구조, t+100년은 개방적 계층 구조이다.
- ⑤ t+100년에 비해 t+50년의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에 유리하다.

【심층 분석】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

[정답] ③

[Comment]

- ✓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출제된 계층 도표 문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아 온 자료 제시 방식이 여럿 사용되었지만, 문항 난도 자체는 근래 평가원이 출제하여 온 계층 도표 문항과 비슷한 수준이다.
- ✓ 오답 중에서는 ④번 선택지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계층 구조의 폐쇄성이나 개방성은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른 ‘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자료 분석]

상승 이동을 통해 B에 진입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B는 하층이다. B가 하층이므로, A에서 B로의 수직 이동은 하강 이동이다. A에서 B로의 수직 이동과 A에서 C로의 수직 이동의 방향이 같으므로, A에서 C로의 수직 이동도 하강 이동이다. 따라서 A는 상층, C는 중층이다. 정리하면, A는 상층, B는 하층, C는 중층이다.

위 분석 내용과 자료 내용을 종합하여 연도별 갑국 계층의 인구 구성 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분	t년	t+50년	t+100년
상층(A)	10	30	20
중층(C)	30	20	50
하층(B)	60	50	30

[정답 풀이]

- ③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는 t년이 $6(=60/10)$, t+100년이 $3/2(=30/20)$ 이다. 따라서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는 t년보다 t+100년이 작다.

[오답 풀이]

- ① t년에 중층 인구 비율(30%)은 하층 인구 비율(60%)의 0.5배이다.
- ② t+50년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 ④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t년이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⑤ t+50년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 t+100년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 비해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사회 안정에 불리하다. 따라서 t+100년에 비해 t+50년의 계층 구조는 사회 안정에 불리하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다음 글의 필자가 강조하는 사회 운동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 운동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일반화된 믿음이 없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집단행동에서 비롯한다. 참여자 사이에서 이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면, 행동의 조직화가 요구된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참여자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결성되고, 참여자는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집단적인 행동과 의사 표현이 일관되고 지속되도록, 조직은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참여자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 운동 단체와의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 운동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 ① 다수의 자발적인 행동에 기반하여 유지된다.
- ②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 ③ 목표와 활동 방향을 정당화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 ④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집단행동이다.
- ⑤ 현재의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지향한다.

[심층 분석]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

[정답] ②

[Comment]

- ✓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논리적 차원에서 개념의 특징에 관하여 물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문항이다. '관료제', '하위문화', '사회적 소수자' 등의 주제에서 유사한 유형의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

[정답 풀이]

- ② 제시된 글의 필자는 집단행동의 조직화 과정이 사회 운동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시된 글의 필자가 강조하는 사회 운동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다수의 자발적인 행동에 기반하여 유지된다.'는 사회 운동의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제시된 글의 필자가 강조하는 사회 운동의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③ '목표와 활동 방향을 정당화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회 운동의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제시된 글의 필자가 강조하는 사회 운동의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④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집단행동이다.'는 사회 운동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니라 특정 사회 운동이 될 수 있는 특징이며, 제시된 글의 필자가 강조하는 사회 운동의 특징으로 보기도 어렵다.
- ⑤ '현재의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지향한다.'는 사회 운동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니라 특정 사회 운동이 될 수 있는 특징이며, 제시된 글의 필자가 강조하는 사회 운동의 특징으로 보기도 어렵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일탈 이론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3점]

[서술형 문항]

이름: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일탈 행동 원인을 A~C의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구분	일탈 행동의 원인
A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사회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한 규범이 미처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	온라인 공간에서는 경미한 일탈조차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내면화하였기 때문이다.
C	온라인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일탈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학습하였기 때문이다.

[교사의 평가] A~C 입장에서 모두 옳게 설명하였음.

- ① A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의 확대를 강조한다.
- ② B는 2차적 일탈이 발생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 ③ C는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최소화하면 일탈 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 ④ A와 달리 B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탈 행동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C와 달리 A는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자가 되어 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심층 분석]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

[정답] ②

[Comment]

- ✓ 채점형 퍼즐 문항과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지만, [교사의 평가] 내용이 'A~C 입장에서 모두 옳게 설명하였음.'이기에 사실상 사례 문항이다.
- ✓ 오답 중에서 ①번 선택지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구별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가 제법 있었던 듯하다.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구별'은 최근 평가원 출제 문항에서 자주 활용되는 소재이므로, 반드시 두 이론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분석]

A는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 B는 낙인 이론, C는 차별 교제 이론이다.

[정답 풀이]

- ② 낙인 이론은 2차적 일탈(최초의 일탈 행동인 1차적 일탈을 한 사람이 낙인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오답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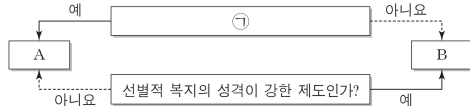
- ①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의 확대를 강조하는 이론은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이 아니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③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최소화하면 일탈 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은 차별 교제 이론이 아니라 낙인 이론이다.
- ④ 낙인 이론과 달리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탈 행동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차별 교제 이론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자가 되어 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중 하나임.) [3점]

갑국에는 사회 보장 제도 A, B만 존재하며, A, B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갑국은 (가), (나)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가) 지역 인구는 (나) 지역 인구의 2배이다. <자료 1>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 A, B를 구분한 것이고, <자료 2>는 갑국의 지역별 수급자 현황의 일부이다. 단, A 수급자 수 대비 중복 수급자 수의 비율은 (가) 지역이 10%, (나) 지역이 20%이다.

<자료 1>



<자료 2>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비(非)수급자 비율	18	20
중복 수급자 비율	8	15

* 비(非)수급자: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사람
 ** 중복 수급자: A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B 수급자인 사람
 *** 비수급자(중복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비수급자(중복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① ㉠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② A와 달리 B는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③ B 수급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
- ④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낮다.
- 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나) 지역이 (가) 지역의 2배이다.

[심층 분석]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정답] ⑤

[Comment]

✓ 이번 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전 문항 중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이다. 문항의 실질적 난도에 비해 다소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였으나, 최근의 기출 문항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문항이었다.

[자료 분석]

공공 부조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이고, 사회 보험은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따라서 A는 사회 보험, B는 공공 부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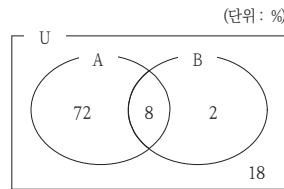
(가) 지역의 경우, 중복 수급자 비율은 8%이고, A 수급자 수 대비 중복 수급자 비율은 10%이므로, A 수급자 비율은 $80(=8 \div 0.1)\%$ 이다.

(나) 지역의 경우, 중복 수급자 비율은 15%이고, A 수급자 수 대비 중복 수급자 비율은 20%이므로, A 수급자 비율은 $75(=15 \div 0.2)\%$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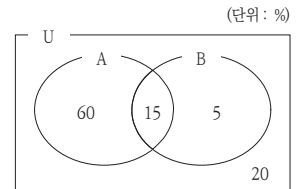
각 지역에서 'A 수급자 비율 +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 + 비(非)수급자 비율 = 100(%)'이므로,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가) 지역이 2%, (나) 지역이 5%임을 알 수 있다.

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의 지역별 A, B 수급자 비율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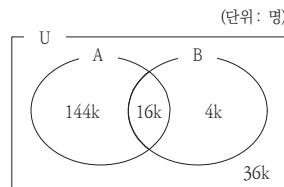


<(나)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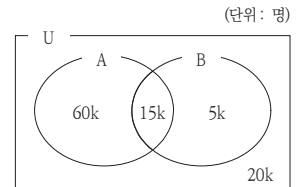


(가) 지역 인구는 (나) 지역 인구의 2배이므로, (가) 지역 인구를 200k명, (나) 지역 인구를 100k명으로 가정하고, 갑국의 지역별 A, B 수급자 비율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역>



<(나) 지역>



[정답 풀이]

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 부조인 B이다. B의 수급자 비율은 (나) 지역(20%)이 (가) 지역(10%)의 2배이다.

[오답 풀이]

① ㉠에는 사회 보험에 대해서는 '예', 공공 부조에 대해서는 '아니요'라는 답변이 적절한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는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모두에 대해서 '예'라는 답변이 적절하다. 따라서 ㉠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② 공공 부조와 달리 사회 보험은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B 수급자 수는 (나) 지역(20k명)과 (가) 지역(20k명)이 동일하다.

④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 보험인 A이다. A의 수급자 비율은 (가) 지역(80%)이 (나) 지역(75%)보다 높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

사회 변동 이론 A, B 중 하나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 순환론 중 하나임.)

A: 사회는 지속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고 본다.
B: 사회가 단계적으로 변동하며, 모든 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것이라고 본다.

질문	학생	갑	을	병	정	무
서구 중심적인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가?		○	○	×	×	○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가?		×	○	○	○	×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한다고 보는가?		○	×	○	×	○
홍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한가?		×	○	×	×	○

(○: 예, ×: 아니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심층 분석]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

[정답] ①

[Comment]

✓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였더라도 제시된 질문에 대한 이론별 옳은 응답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같은 시험의 1번 문항(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과 10번 문항(자료 수집 방법)도 자료 분석의 정확성이 정답 선택에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자료 분석]

사회가 지속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는 A는 순환론이다. 사회가 단계적으로 변동하며, 모든 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것이라고 보는 B는 진화론이다.

제시된 질문에 대한 이론별 옳은 응답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이론	진화론	순환론
서구 중심적인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가?		○	×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가?		×	○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한다고 보는가?		○	×
홍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한가?		×	○

(○: 예, ×: 아니오)

[정답 풀이]

① 순환론, 진화론 중 하나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은 진화론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응답한 갑이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7번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빈곤의 유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인간은 무인도에 고립되어 사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존재하고 생활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빈곤은 개인적 생존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개인들이 생활하는 사회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조차도 사회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빈곤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규정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

<보 기>

ㄱ.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ㄴ.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ㄷ.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심층 분석]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정답] ①

[Comment]

✓ 자료에서 '빈곤의 유형' 중 하나만을 다루었다는 점이 해당 주제에서 출제된 역대 기출 문항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독특한 문항이다. 최근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 변동 이론' 주제에서 소위 '단독 개념 문항'의 출제 빈도가 높는데, 본 문항은 '단독 개념 문항'이 관점, 이론, 태도를 다루지 않는 주제에서도 출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빈곤의 유형' 이외에 '자료 수집 방법', '관료제와 탈관료제' 등의 주제에서도 '단독 개념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 '단독 개념 문항'은 자료를 통해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영락없이 오답을 고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료 분석을 정확히 하는 데 특별히 주력해야 한다.

✓ ㄷ 선택지의 내용이 근 몇 년간 평가원 출제 문항에서 빈출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③번 선택지의 선택 비율(30% 내외로 추정)이 제법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자료 분석]

제시된 글에는 빈곤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규정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따라서 제시된 글에서 강조하는 빈곤의 유형은 상대적 빈곤이다.

[정답 풀이]

ㄱ. 상대적 빈곤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상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은 일반적으로 전체 사회의 소득 분포를 대표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므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ㄷ.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이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임.)

○○기업은 설립 초기 A의 운영 원리를 도입하여 고정된 부서나 직책 없이 유동적인 프로젝트 팀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B의 운영 원리를 도입하였다. B의 운영 원리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성원 간 협력도 일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다.

- ① A와 달리 B는 공식적 규범에 의해 구성원을 통제한다.
- ② A와 달리 B는 효율적인 목표 달성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다.
- ③ B에 비해 A는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 체계를 중시한다.
- ④ B에 비해 A는 목적과 수단의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⑤ A, B는 모두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심층 분석】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정답】 ③

【Comment】

- ✓ ①, ②번 선택지와 관련하여,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모두 사회 조직(공식 조직)의 형태로써, 공식적 규범에 의해 구성원을 통제하고, 효율적인 목표 달성이 조직 운영의 핵심임을 기억해야 한다.

【자료 분석】

A는 탈관료제, B는 관료제이다.

【정답 풀이】

- ③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 체계를 중시한다.

【오답 풀이】

- ①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모두 공식적 규범에 의해 구성원을 통제한다.
- ②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모두 효율적인 목표 달성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다.
- ④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목적과 수단의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
- ⑤ 관료제는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아니라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우리의 문화유산 x +

제주 해녀 문화

해녀는 ㉠ 상군이나 동료 해녀를 관찰하고, 그들에게 경험을 들으면서 물질[㉡]을 익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질에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 해녀 문화를 공유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배운다.

해녀는 테왁, 망사리, 빗창 등과 같은 ㉣ 도구를 사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한다. 이들은 매년 물질에 들어가기 전에 잠수굿을 하여 풍요와 안전을 기원한다. ㉤ 잠수굿은 지역 주민에게 자연스럽게 익숙한 풍습이며, 지역 특유의 ㉥ 민간 신앙이다. 해녀들이 바다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이어온 ㉦ 물질은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의식, 경제 활동 등 생활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 상군: 물질 경험이 풍부하여 노련하고 기량이 뛰어난 해녀
** 물질: 해녀가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 ① ㉠에는 문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속성이 부각되어 있다.
- ② ㉡에서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 ㉣은 모두 비물질문화에 해당한다.
- ④ ㉤에는 문화가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는 속성이 부각되어 있다.
- ⑤ ㉥에는 문화가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속성이 부각되어 있다.

【심층 분석】 문화 변동의 양상과 대응

【정답】 ④

【Comment】

- ✓ 출제자들이 <폭작 속았수다>를 재미있게 보고 합숙에 들어간 듯하다.

【정답 풀이】

- ④ ㉤에는 문화가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는 속성인 공유성이 부각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① ㉠에는 문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속성인 변동성이 아니라 문화가 경험과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됨을 의미하는 속성인 학습성이 부각되어 있다.
- ② ㉡에서 ‘문화’는 물질적으로 진보된 상태나 세련되고 교양 있는 모습을 뜻하는 좁은 의미의 문화가 아니라 인간 생활 양식의 총체를 뜻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로 사용되었다.
- ③ ㉢은 비물질문화가 아니라 물질문화에 해당하고, ㉣은 비물질문화에 해당한다.
- ⑤ ㉥에는 문화가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속성인 학습성이 아니라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속성인 총체성이 부각되어 있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 성장과 세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양 인구(15~64세 인구)가 감소할수록 경제 성장 동력은 약화되며, 노년 부양비가 커질수록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
갑국의 t+100년 전체 인구는 을국의 t년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을국에서 t+100년의 전체 인구는 t년의 2배이다. 갑국에서 t년의 유소년 인구는 t+100년의 4배이다.

구분	t년		t+10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노령화 지수	50	50	150	25
유소년 부양비	100	100	40	8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sim1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노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보 기>

- ㄱ. t년 대비 t+100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 증가율은 40%이다.
ㄴ. t년에 노년 인구는 갑국이 을국의 2배이고, t+100년에 노년 인구는 갑국이 을국의 1.5배이다.
ㄷ. ㉠에 따르면, 갑국은 t년에 비해 t+100년에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
ㄹ. ㉠에 따르면, 을국은 t년에 비해 t+100년에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심층 분석] 현대 사회의 변화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정답] ③

[Comment]

- ✓ 역대 평가원 기출 문항 중 ‘인구 부양비 도표’ 문항의 자료는 ‘국가’와 ‘연도’가 각각 둘 이상인 경우, ‘국가 → 연도’ 순으로 표 내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 문항의 자료는 ‘연도 → 국가’ 순으로 표 내부가 구성되었다. 자료를 관성적으로 분석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실수를 저질러서 오답을 고른 경우가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부양 인구가 감소할수록 경제 성장 동력은 약화되며, 노년 부양비가 커질수록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와 같은 정보가 머리에 잘 들어 오지 않는다면, **화살표와 부호를 활용하여 정보를 정리하여 볼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부양 인구가 감소할수록(↓) 경제 성장 동력은 약화되며(↓)”는 ‘부양 인구가 경제 성장 동력 간 정(+)의 관계’로, “노년 부양비가 커질수록(↑)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는 ‘노년 부양비와 세대 간 갈등 간 정(+)의 관계’로 정리할 수 있다.
- ✓ t년에 갑국과 을국은 노령화 지수도 같고 유소년 부양비도 같으므로, 한 국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른 한 국가에 대한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자료 분석]

t년에 갑국의 경우, 노령화 지수가 50이므로, (노년 인구):(유소년 인구) = 1:2이고, 유소년 부양비가 100이므로, (부양 인구):(유소년 인구) = 1:1이다. 따라서 t년에 갑국의 경우, (노년 인구):(부양 인구):(유소년 인구) = 1:2:2이다. t년에 을국의 경우, 노령화 지수와 유소년 부양비가 각각 갑국의 노령화 지수와 유소년 부양비와 동일하므로, (노년 인구):(부양 인구):(유소년 인구) = 1:2:2이다.

t+100년에 갑국의 경우, 노령화 지수가 150이므로, (노년 인구):(유소년 인구) = 3:2이고, 유소년 부양비가 40이므로, (부양 인구):(유소년 인구) = 5:2이다. 따라서 t+100년에 갑국의 경우, (노년 인구):(부양 인구):(유소년 인구) = 3:5:2이다.

t+100년에 을국의 경우, 노령화 지수가 25이므로, (노년 인구):(유소년 인구) = 1:4이고, 유소년 부양비가 80이므로, (부양 인구):(유소년 인구) = 5:4이다. 따라서 t+100년에 을국의 경우, (노년 인구):(부양 인구):(유소년 인구) = 1:5:4이다.

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연도별·국가별 인구 구성 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구분	t년		t+10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노년 인구	20	20	30	10
부양 인구	40	40	50	50
유소년 인구	40	40	20	40

갑국의 t+100년 전체 인구는 을국의 t년 전체 인구는 동일하므로, 갑국의 t+100년 전체 인구는 을국의 t년 전체 인구를 각각 100k명으로 가정하자. 을국에서 t+100년의 전체 인구는 t년의 2배이므로, 을국의 t+100년 전체 인구는 200k명이다. 또한 갑국에서 t년의 유소년 인구는 t+100년의 4배이므로, 갑국에서 t년의 유소년 인구는 80k명이다.

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과 을국의 연도별 인구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명)

구분	t년		t+10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노년 인구	40k	20k	30k	20k
부양 인구	80k	40k	50k	100k
유소년 인구	80k	40k	20k	80k
전체 인구	200k	100k	100k	200k

[정답 풀이]

- ㄴ. t년에 노년 인구는 갑국(40k명)이 을국(20k명)의 2배이고, t+100년에 노년 인구는 갑국(30k명)이 을국(20k명)의 1.5배이다.
ㄷ.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t년이 $50(= (40k / 80k) \times 100)$, t+100년이 $60(= (30k / 50k) \times 100)$ 으로, t년에 비해 t+100년에 증가하였다. ㉠에 따르면, 노년 부양비가 커질수록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므로, 갑국은 t년에 비해 t+100년에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

[오답 풀이]

- ㄱ. t년 대비 t+100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 증가율은 $100(= ((80k - 40k) / 40k) \times 100\%)$ 이다.
ㄹ. 갑국의 부양 인구는 t년에 40k명, t+100년에 100k명으로, t년 대비 t+100년에 증가하였다. ㉠에 따르면, 부양 인구가 감소할수록 경제 성장 동력은 약화되므로, 갑국은 t년에 비해 t+100년에 경제 성장 동력이 강화된다.

MEMO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등급컷

1등급	42점	2등급	39점	3등급	35점
-----	-----	-----	-----	-----	-----

빠른 정답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1	③	2	6	⑤	3	11	②	2	16	①	3
2	④	3	7	②	2	12	⑤	3	17	④	2
3	①	2	8	①	2	13	④	3	18	①	3
4	③	2	9	④	3	14	①	2	19	⑤	2
5	④	3	10	②	3	15	⑤	2	20	③	3

●○○○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번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 세계에서 노르웨이와 우리나라 두 곳뿐인 시드 볼트(Seed Vault)는 ㉠식물 자원 고갈에 대비해 종자를 보관하는 금고이다. 종자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갖춰지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양분을 이용해 발아를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종자를 건조한 후 영하 20℃의 온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시드 볼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종자가 노화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시드 볼트는 인류가 미래의 위기로부터 ㉤유전 자원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불가치적이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 ⑤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심층 분석]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정답] ③

[Comment]

✓ 평소 애당 주제에서 출제되는 문항들처럼 매우 낮은 난도로 출제되었다.

[자료 분석]

식물 자원 고갈에 대비해 종자를 보관하는 것(㉠), 종자를 건조한 후 영하 20℃의 온도에 저장하는 것(㉢), (인류가) 유전 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이다.

(종자가)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갖춰지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양분을 이용해 발아를 시작하는 것(㉡), 종자가 노화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다.

정리하면, ㉠, ㉢, ㉤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 ㉡, ㉣과 같은 현상은 자연 현상이다.

[정답 풀이]

③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자연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오답 풀이]

- ①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고, 자연 현상은 불가치적이다.
- ②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④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고, 자연 현상은 보편성만이 나타난다.
- ⑤ 사회·문화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되고, 자연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번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사람들은 부와 권력이 아닌 자신들이 습득한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한다. 이러한 도덕적 가치는 사회 체계가 요구하는 지위 획득에 필요한 노력과 그에 따른 역할 수행의 성과로 구성된다. 정당한 노력에 따라 지위를 획득하고 자신의 역할에 따른 성과를 달성한 개인은 도덕적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를 통해 사회는 작동한다.

- ①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 ②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본다.
- ③ 사회적 지위는 기득권층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본다.
- ④ 사회 각 부분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본다.
- ⑤ 사회 제도를 통해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재생산된다고 본다.

[심층 분석]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정답] ④

[Comment]

✓ ‘개인의 역할’이라는 내용 소재 측면과 ‘기능론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분별’이라는 출제 의도 측면에서 모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번 문항과 매우 유사하다.

[자료 분석]

제시된 글의 필자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는 사회 체계가 요구하는 지위 획득에 필요한 노력과 그에 따른 역할 수행의 성과로 구성되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사회가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제시된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기능론이다.

[정답 풀이]

④ 기능론은 사회 각 부분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본다.

[오답 풀이]

- ①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②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③ 사회적 지위는 기득권층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⑤ 사회 제도를 통해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재생산된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관련 기출 1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번]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사회 체계 안에서 인간의 상호 작용이 작동하는 이유는 행위자들에게 할당되는, 분화된 역할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역할 구조 속에서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개인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공유된 기대에 부응하여 다른 부분과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을 함에 따라 사회라는 완전체가 형성된다.

<보 기>

- ㄱ.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 ㄴ. 개인 행위자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 ㄷ.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 ㄹ.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관련 기출 1 | 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임.)

최근 여러 회사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조직의 영웅이라고 착각하며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조직 운영 원리 A와 B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A의 경우 규칙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조직 문화에서 개인이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한편, B의 경우 위계가 강조되는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개인이 자신의 높은 직급을 내세우며 의사 결정을 독점하여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① A에 비해 B는 구성원의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 ② A와 달리 B는 업무 수행의 안정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B에 비해 A는 조직 내 무사안일주의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 ④ B와 달리 A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⑤ (가)에는 '수평적 의사 결정 구조의 강화'가 들어갈 수 없다.

[심층 분석]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정답] ①

[Comment]

✓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7번 문항과 유사한 구성으로 출제된 한편, 자료 내용이 시의적인 소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다.

[자료 분석]

'규칙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조직 문화'로 표현되는 A는 탈관료제, '위계가 강조되는 경직된 조직 문화'로 표현되는 B는 관료제이다.

[정답 풀이]

①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는 구성원의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② 탈관료제는 업무 수행의 안정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조직 내 무사안일주의가 생겨날 가능성이 낮다.
- ④ 관료제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⑤ 위계가 강조되는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개인이 자신의 높은 직급을 내세우며 의사 결정을 독점하여 발생하는 권한 남용은 수평적 의사 결정 구조의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에는 '수평적 의사 결정 구조의 강화'가 들어갈 수 있다.

관련 기출 1 |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7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임.) [3점]

수평적 의사 결정 방식의 확대, 탄력적인 조직 운영 등을 특징으로 하는 A는 환경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B와 구분된다. B는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세분화된 업무 수행을 강조함으로써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예상 밖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기존 조직의 틀 내에서 새로운 부서를 추가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 사회학자는 B의 이러한 특징을 ㉠ 카멜리펀트(Camelephant)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낙타와 코끼리를 합친 것처럼 느리고 둔하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① A는 인간 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화 초기에 등장하였다.
- ② B는 목적 전치 현상을 해결하기에 용이하다.
- ③ A는 B에 비해 조직 구성원의 재량권 및 자율성이 낮다.
- ④ B는 A에 비해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체계를 중시한다.
- ⑤ ㉠의 문제는 조직 구성원의 위계적 서열을 강화함으로써 해결된다.

[정답]

관련 기출 1 | ④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4번

자료에 제시된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화의 속성 A, B가 부각된 사례

A



함바족 여성들은 피부와 머리카락에 버터와 적토로 만든 오티제(Otjize)를 바르고 머리를 땅을 밟는 법을 어머니로부터 배움.

B



마사이족 남성들이 추는 아두무(Adumu)의 독특한 점프 동작은 마사이족 전사들의 용기와 인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함.

<보 기>

- ㄱ. A는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ㄴ. A의 사례로 야구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응원 동작을 보고 따라하며 익히는 것을 들 수 있다.
- ㄷ. B는 문화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와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ㄹ. B의 사례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현금 거래가 감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심층 분석] 문화의 이해

[정답] ③

[Comment]

✓ ②번 선택지를 골라 틀린 경우가 의외로 더러 있는데, A가 부각된 사례의 “배움”과 ㄱ 선택지의 “전승”을 연결하여 잘못된 선택을 한 듯하다.

[자료 분석]

‘함바족 여성들은 피부와 머리카락에 버터와 적토로 만든 오티제(Otjize)를 바르고 머리를 땅을 밟는 법을 배움.’이라는 사례에는 문화의 학습성이 부각된다. 따라서 A는 문화의 학습성이다.

‘마사이족 남성들이 추는 아두무(Adumu)의 독특한 점프 동작은 마사이족 전사들의 용기와 인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함.’이라는 사례에는 문화의 공유성이 부각된다. 따라서 B는 문화의 공유성이다.

[정답 풀이]

- ㄴ. 학습성의 사례로 야구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응원 동작을 보고 따라하며 익히는 것을 들 수 있다.
- ㄷ. 공유성은 문화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와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ㄱ.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은 학습성이 아니라 축적성이다.
- ㄹ.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현금 거래가 감소하는 것을 들 수 있는 속성은 공유성이 아니라 변동성이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지방 자치 단체 A는 지역 내 대학생들의 학업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다. A는 ㉠ 시범 사업을 적용한 학교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전과 후에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설문 조사를 대규모로 실시하였다. 이후 학생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시범 사업의 효과에 의문을 가지고 있던 연구자 갑은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A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각각 1,000명을 추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등록금 지원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업 지속 의사의 증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 기>

- ㄱ. 갑의 연구에서 ㉠은 표본이다.
 ㄴ. 갑은 2차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ㄷ. 갑의 연구 결과는 A의 시범 사업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심층 분석]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정답] ④

[Comment]

✓ 작년에 작성한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문항에 대한 [심층 분석]에서 해당 문항은 ‘표본’ 개념과 관련된 ㄴ 선택지를 너무 거저 쫓기에 추후 ‘연구-연구자-표본’의 연결이 선택지의 정오를 가르는 결정적 지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었다. 이러한 짐작이 실제로 올해 본 문항의 ㄱ 선택지를 통해 현실화되었다. 옳지 않은 설명인 ㄱ 선택지가 포함된 ①, ③, ⑤번 선택지의 선택 비율 합은 50%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풀이]

- ㄴ. 갑은 A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므로, 2차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ㄷ. 갑의 연구 결과, 등록금 지원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업 지속 의사의 증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갑의 연구 결과는 A의 시범 사업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오답 풀이]

- ㄱ. 갑의 연구에서 ㉠은 표본이 아니다. 갑의 연구에서 표본은 ‘A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학생 2,000명’이다.

관련 기출 1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은 A국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 관계망이 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 소비에 대한 ㉡가족 관계망, 지인 관계망, 단체 관계망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갑은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명을 추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 소비는 지난 1년간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로, 가족 관계망은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로, 지인 관계망은 가족과 친척 이외에 평소 교류하는 사람의 수로, 단체 관계망은 참여하는 단체의 수로 파악하였다. ... (중략) ...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문화 소비와 사회 관계망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문화 소비와 단체 관계망 사이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문화 소비와 가족 관계망, 문화 소비와 지인 관계망 사이에는 각각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 기>

- ㄱ. ㉠은 ㉠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ㄴ. ㉡은 갑이 선정한 표본이다.
 ㄷ. ㉢로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가 많을수록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는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정답]

관련 기출 1 | ①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6번

그림에서 작가가 강조하는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을 약화시킨다.
- ② 유행에 따라 빠르게 소비되고 사라진다.
- ③ 정부에 의한 문화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 ④ 상류층의 문화적 취향을 일반 대중에게 강요한다.
- ⑤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자극적인 문화를 양산한다.

【심층 분석】 현대 사회의 문화 양상

【정답】 ⑤

【Comment】

✓ 시사만평 콘셉트의 자료를 바탕으로 익살스럽게 출제된 쉬운 문항이다.

【정답 풀이】

- ⑤ 그림에서 작가가 강조하는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는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자극적인 문화를 양산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객관적인 사실’은 그림에서 ‘실제 통계’, ‘인터뷰 원본’, ‘팩트 체크’에 대응되고, ‘자극적인 문화’는 그림에서 ‘미확인 루머’, ‘남시성 키워드’, ‘선정적 사진’에 대응된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은 왜 제도의 명령에 복종하는가? 이것은 ‘자기기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기기만은 실제로는 자발적인 것을 필연인 것처럼 스스로 가장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역할들의 복합체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자기기만을 하며 제도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기기만을 의식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무한한 불안정성과 함께 선택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보 기>

- ㄱ. 사회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 ㄴ.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 ㄷ. 사회는 개인이 옳다고 믿는 규범 속에서 작동한다고 본다.
- ㄹ. 개인이 사회 체계 내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심층 분석】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

【정답】 ②

【Comment】

- ✓ 철학 용어를 활용하여 자료를 다소 현학적으로 작성하여서 필자의 관점 파악이 어려웠을 것이다. 자료의 내용은 ‘인간은 사실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자기기만을 함으로써, 즉 스스로를 속임으로써 제도의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이며, 인간이 제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이유는 외부의 강제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이렇게 문해력을 요구하는 사례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자료 분석】

제시된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사회 명목론이다.

【정답 풀이】

- ㄱ. 사회 명목론은 사회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 ㄷ.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개인이 옳다고 믿는 규범 속에서 작동한다고 본다.

【오답 풀이】

- ㄴ.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보는 관점은 사회 명목론이 아니라 사회 실재론이다.
- ㄹ. 개인이 사회 체계 내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관점은 사회 명목론이 아니라 사회 실재론이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다양한 이주민들은 오랜 기간 주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왔다. A 이주민들은 다른 이주민들과 달리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만의 ㉠ 사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이 펼친 운동에는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 사회 구성원조차 꺼리는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갑국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그들 나름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A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었고, 이는 새로운 ㉡ 사회 운동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 당시 A 이주민들은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칭하고 자신들을 주변화했던 갑국 사회의 제도와 가치를 부정하며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① ㉠에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 ② ㉡에는 반문화를 주류 문화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 ③ ㉠과 달리 ㉡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이다.
- ④ ㉠과 달리 ㉡은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사회 운동이다.
- ⑤ ㉠과 ㉡은 모두 주류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다.

【심층 분석】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

【정답】 ①

【Comment】

- ✓ 오답 중에서는 ②번 선택지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은 그 자체가 반문화의 특성을 띠 뿐, 거기에 반문화를 주류 문화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풀이】

- ① A 이주민들만의 사회 운동인 ㉠은 A 이주민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전개되었으며 그들 나름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하위문화의 특성을 띠지만,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갑국의 가치를 실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반문화의 특성은 띠지 않는다. 따라서 ㉠에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② A 이주민들이 갑국 사회의 제도와 가치를 부정하며 전개한 사회 운동인 ㉡은 반문화의 특성을 띠다. 하지만 ㉡에 반문화를 주류 문화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이 아니다.
- ④ ㉠은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사회 운동이 아니다.
- ⑤ ㉡은 주류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 아니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9번

다음 자료는 학생이 작성한 질문과 교사의 평가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3점]

<단원 확인 평가>

※ 제시된 2가지 일탈 이론에 대해 하나는 '예', 다른 하나는 '아니요'로 응답이 나뉘는 질문을 작성하시오

일탈 이론	질문	평가 결과
A, B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는가?	맞음
A, D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보는가?	맞음
B, C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맞음
C, D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틀림

- ① A는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 ② B는 일탈의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강조한다.
- ③ C는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본다.
- ④ D는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한 무규범 상태에 주목한다.
- ⑤ C, D와 달리 A, B는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한다.

[심층 분석]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

[정답] ④

[Comment]

✓ 넓은 의미에서는 신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구분할 수 있는 (없는) 질문'을 활용한 퍼즐 문항의 한 유형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연계된다면 '질문'이나 '평가 결과'에 빈칸을 뚫거나, 주어진 자료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A~D가 확정되지 않고 선택지별로 주어지는 가정에 입각하여 정오를 판단해야 하는 개방형 문항으로 설계하는 등 난도를 높여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

[자료 분석]

질문별 각 이론에 대해 옳은 답변이 무엇인지를 표(뒤: 뒤르케의 아노미 이론, 머: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 차별 교제 이론, 낙: 낙인 이론)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뒤	머	차	낙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는가?	○	○	○	×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보는가?	○	×	×	×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	×	×	○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	×	○	○

(○: 예, ×: 아니오)

<단원 확인 평가>의 조건에 따르면, 평가 결과가 '맞음'인 질문은 제시된 2가지 일탈 이론을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고, '틀림'인 질문은 제시된 2가지 일탈 이론을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다.

첫 번째 질문인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는가?'로 A, B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낙인 이론은 A, B 중 하나이다.

두 번째 질문인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보는가?'로 A, D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뒤르케의 아노미 이론은 A, D 중 하나이다.

세 번째 질문인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로 B, C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낙인 이론은 B, C 중 하나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낙인 이론은 A, B 중 하나이므로, 낙인 이론은 B이다.

네 번째 질문인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로 C, D를 구분할 수 없는데 B가 낙인 이론이므로, C, D는 각각 뒤르케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이고, A는 차별 교제 이론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뒤르케의 아노미 이론은 A, D 중 하나이므로, 뒤르케의 아노미 이론은 D,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C이다.

정리하면, A는 차별 교제 이론, B는 낙인 이론, C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D는 뒤르케의 아노미 이론이다.

[정답 풀이]

④ 뒤르케의 아노미 이론은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한 무규범 상태에 주목한다.

[오답 풀이]

- ①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차별 교제 이론이 아니라 낙인 이론이다.
- ② 일탈의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강조하는 이론은 낙인 이론이 아니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③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보는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아니라 차별 교제 이론이다.
- ⑤ 머튼의 아노미 이론, 뒤르케의 아노미 이론은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한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되고,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임.) [3점]

다음은 ○○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과 세대 간 이동 현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30%이며, 세대 간 이동에서 갑은 A에서 B로, 을은 C에서 B로 하강 이동을 하였고, 병은 A에서 C로 상승 이동을 하였다. 단,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다.

<자료 1>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

(단위: %)

구분	A	B	C
부모 세대	30	50	20
자녀 세대	50	30	20

<자료 2>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세대 간 이동 현황

세대 간 이동 양상	세대 간 이동 비율(%)
A→B	10
C→B	5
A→C	10

*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을 비교하여 판단함.

- ① 갑의 부모 계층보다 을의 부모 계층이 낮다.
- ②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보다 중층이 많다.
- ③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가 적다.
- ④ 부모 세대 계층 구조와 달리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 ⑤ 자녀 세대 계층 구조에 비해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 실현에 유리하다.

[심층 분석]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

[정답] ②

[Comment]

- ✓ 2015 개정 교육과정 최초로 (3×3) 표를 그린 후 계산을 통해 그 내부를 채워야 하는 계층 도표 문항이 출제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계층 도표 문항이 본 문항처럼 출제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 문항이 이번 학년도 모의평가 문항으로 등장한 이상 '트렌드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3×3) 표를 그려서 풀이하여야 하는 이전 교육과정의 계층 도표 문항과 이번 학년도 연계 교재에 수록된 계층 도표 문항의 학습을 미루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의 학습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본 문항도 EBS 연계 문항이다.
- ✓ 오답 중에서 선택 비율이 가장 높은 ③번 선택지(30% 내외로 추정)는 정답인 ②번 선택지(40% 내외로 추정)와 선택 비율 차이가 크지 않다. ③번 선택지는 오답 중 유일하게 정오 판단에 <자료 2>에 대한 분석, 즉 (3×3) 표를 그리는 방식의 분석을 요구하는 선택지이다. 응시자 표본이 (3×3) 표를 그려서 풀이하여야 하는 계층 도표 문항에 얼마나 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료 분석]

세대 간 이동에서 갑은 A에서 B로, 을은 C에서 B로 하강 이동을 하였으므로, B는 하층이다. B가 하층인데 병은 A에서 C로 상승 이동을 하였으므로, A는 중층, C는 상층이다.

<자료 1>과 <자료 2>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구분		부모 세대 계층			계
		C(상층)	A(중층)	B(하층)	
자녀 세대 계층	C(상층)	5	10	5	20
	A(중층)	10	10	30	50
	B(하층)	5	10	15	30
계		20	30	50	100

[정답 풀이]

- ②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전체의 5%)보다 중층(전체의 10%)이 많다.

[오답 풀이]

- ① 갑의 부모 계층은 중층, 을의 부모 계층은 상층이다. 따라서 갑의 부모 계층보다 을의 부모 계층이 높다.
- ③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전체의 25%)보다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전체의 45%)가 많다.
- ④ 부모 세대 계층 구조와 달리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 ⑤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 비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사회 통합 실현에 불리하므로, 자녀 세대 계층 구조에 비해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 실현에 불리하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상이한 민족 간의 적대주의는 문명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다. 힘이 강한 민족은 자신들의 활력을 바탕으로 정교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 이들은 힘이 약한 민족을 정복하면서 위대한 문명의 꽃을 피운다. 이 과정에서 지배자들은 결혼을 통해 피지배자들과 섞이고, 이와 함께 자라나는 혐오감은 전체 문명의 활력을 소진시킨다. 이때 적대감으로 무장한 또 다른 강한 민족이 정복의 열쇠를 들고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연다.

<보 기>

- ㄱ.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ㄴ. 사회 변동이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본다.
 ㄷ.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한다.
 ㄹ. 사회는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심층 분석]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

[정답] ②

[Comment]

- ✓ 응시자의 절반 정도가 틀린 문항으로서, 이번 학년도 9월 모의평가 비(非)도표 문항 중 13번 문항 다음으로 오답률이 높은 문항일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의 관점을 확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자료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고, 그마저도 “전체 문명의 활력을 소진” 정도로 은근히 제시되어 있어 필자의 관점을 진화론으로 착각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 분석]

제시된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순환론이다.

[정답 풀이]

- ㄱ. 순환론은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ㄷ. 순환론은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한다.

[오답 풀이]

- ㄴ. 사회 변동이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관점은 순환론이 아니라 진화론이다.
 ㄹ. 사회는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보는 관점은 순환론이 아니라 진화론이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에 향수를 보급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A는 갑국의 전통 의례 중 약초즙을 뿌려서 향을 내는 방식에 착안하여 뿌리는 형태의 새로운 향수를 개발했다. 이 향수는 갑국의 귀족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을국 향수업자들이 을국의 바르는 향수를 갑국에 가져가 판매했다. 이로 인해 갑국의 서민층도 바르는 향수를 사용하게 되어 갑국에서 향수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 갑국 정부가 기업들을 국유화하면서 A는 자신의 회사를 강제로 빼앗겼다. 이에 A는 자신만의 향수 제조 비법을 들고 을국으로 망명한 후 갑국 귀족들에게 유행했던 향수를 다시 제조하였다. A의 향수는 향수의 본국인 을국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었다.

- ① 갑국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 ② 을국에서 비물질문화의 전파가 나타났다.
- ③ 갑국에서 자국 전파가, 을국에서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 ④ 갑국에서 문화 융합이, 을국에서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 ⑤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심층 분석] 문화 변동의 양상과 대응

[정답] ⑤

[Comment]

✓ 오답 중에서는 ③번 선택지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③번 선택지는 'A가 갑국의 전통 의례 중 약초즙을 뿌려서 향을 내는 방식에 착안하여 뿌리는 형태의 새로운 향수를 개발한 것'을 발명이 아니라 자국 전파로 잘못 분석했을 때 고를 가능성이 큰 오답이다. 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번 문항에서도 활용된 바 있는 함정이다.

[정답 풀이]

⑤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을국 향수업자들이 을국의 바르는 향수를 갑국에 가져가 판매함으로써 인해, A의 향수가 귀족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갑국에서 서민층도 을국의 바르는 향수를 사용하게 된 것은 갑국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접변 결과로 나타난 문화 병존에 해당한다. A가 자신만의 향수 제조 비법을 들고 을국으로 망명한 후 갑국 귀족들에게 유행했던 향수를 다시 제조하면서 A의 향수가 향수의 본국인 을국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된 것은 을국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접변 결과로 나타난 문화 병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갑국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나지 않았다. 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 갑국 정부가 기업들을 국유화하면서 A가 자신의 회사를 강제로 빼앗긴 것은 갑국에서 나타난 문화 접변(외재적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을국에서 비물질문화의 전파가 나타나지 않았다. A가 자신만의 향수 제조 비법을 들고 을국으로 망명한 후 갑국 귀족들에게 유행했던 향수를 다시 제조한 것은 을국에서 나타난 물질문화의 직접 전파에 해당한다.
- ③ 을국에서는 직접 전파가 나타났지만, 갑국에서 자국 전파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A가 갑국의 전통 의례 중 약초즙을 뿌려서 향을 내는 방식에 착안하여 뿌리는 형태의 새로운 향수를 개발한 것은 갑국에서 나타난 자국 전파가 아니라 발명에 해당한다. A가 자신만의 향수 제조 비법을 들고 을국으로 망명한 후 갑국 귀족들에게 유행했던 향수를 다시 제조한 것은 을국에서 나타난 직접 전파에 해당한다.
- ④ 갑국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 않았고, 을국에서 문화 동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관련 기출 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번]

A~C국에서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식사 도구로 수저를 사용하던 A국에서는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이웃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나이프와 포크도 식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 B국의 군인들은 야의 훈련 중 철제 투구를 이용하여 음식을 끓여 먹었던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형태의 냄비를 만들어 조리 도구로 사용하였다.
- C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였던 외국인들이 즐겨 먹던 통조림 고기를 자국의 전통 요리에 접목하여 만든 새로운 음식을 즐기게 되었다.

- ① A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B, C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 ② A, C국에서는 직접 전파가, B국에서는 자국 전파가 나타났다.
- ③ A, B국에서는 자발적 문화 접변이, C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 ④ A, B국은 C국과 달리 문화 변동 과정에서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 ⑤ A, C국에서는 B국과 달리 외래 문화와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났다.

[정답]

관련 기출 1 | 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청년 목수 갑, 펜을 든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갑은 △△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중 사내 혼성 합창단에서 친해진 ㉠ 외국인 노동자 을의 산업 재해를 목격하였다. 당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아 옳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갑은 마라톤 동호회에서 알게 된 ㉡ 인권 변호사 를 찾아가 도움을 받았다. 갑은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자 노동 인권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갑이 투고한 글이 신문에 실려 화제가 되었고, 갑은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갑은 평범한 이들의 노동과 삶이 오롯이 대우받기를 바라며 오늘도 펜을 든다.

<보 기>

- ㄱ. ㉠과 ㉡은 모두 성취 지위이다.
 ㄴ. 자료에는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이 적혀 있다.
 ㄷ. 자료에 적혀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비공식 조직의 개수와 동일하다.
 ㄹ. 자료에 적혀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보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가 2개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심층 분석]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정답] ④

[Comment]

- ✓ 이번 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전 문항 중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으로서, 다른 모든 도표 문항까지 압도하는, 가공할 만한 오답률을 기록하였다. <보기>에서 결정적인 변별 선택지는 ②, ④번 선택지의 정오를 가르는 ㄴ 선택지였으며, 오답인 ②번 선택지의 선택 비율이 정답인 ④번 선택지의 선택 비율의 2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평가원이 재미(?)를 크게 본 함정인 만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다른 대중 매체를 활용하여 재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대중 매체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하자.
- ✓ 본 문항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옳지 않은 설명인 ㄴ 선택지가 포함된 ①, ③, ⑤번 선택지의 선택 비율 합이 50% 내외로 추정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ㄴ 선택지의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이 공동 사회를 의미함을 확신하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았음을 방증하며, 개념과 사례(e.g. 공동 사회와 가족)의 연결뿐만 아니라 개념의 정의 및 속성(e.g. 공동 사회는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에 대한 학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 ㄷ, ㄹ 선택지 정오 판단을 위한 ‘개수 세기’에서 노동조합, 마라톤 동호회, 노동 인권 단체 중 일부나 전부를 빠트리더라도 정답 선택에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신문’에 올린하여 문항을 설계하였다는 점은 특이하다.

[자료 분석]

자료에 적혀 있는 사회 집단 및 사회화 기관은 고등학교, △△ 건설 회사, 사내 혼성 합창단, 노동조합, 마라톤 동호회, 노동 인권 단체, 신문이다.

[정답 풀이]

- ㄱ. ㉠(외국인 노동자)과 ㉡(인권 변호사)은 모두 성취 지위이다.
 ㄷ. 자료에 적혀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1개(고등학교), 비공식 조직의 개수도 1개(사내 혼성 합창단)이다. 따라서 자료에 적혀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비공식 조직의 개수와 동일하다.
 ㄹ. 자료에 적혀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4개(사내 혼성 합창단, 노동조합, 마라톤 동호회, 노동 인권 단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6개(△△ 건설 회사, 사내 혼성 합창단, 노동조합, 마라톤 동호회, 노동 인권 단체, 신문)이다. 따라서 자료에 적혀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보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가 2개 많다.

[오답 풀이]

- ㄴ. 자료에는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 즉 공동 사회가 적혀 있지 않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4번

다음은 자료 수집 방법 A~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와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임.)

※ 질문에 따라 A, B, C, D를 '예', '아니오'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칸에 적으시오			
질문	예	아니오	채점 결과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생활하며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펴보는가?	A, C	B, D	㉠
인위적 통제 상황에서 처치로 인한 변화를 관찰하는가?	A, B, C	D	2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가?	A, C, D	B	3점
방법론적 일원론을 기초로 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가?	C, D	A, B	4점

* 교사는 질문별로 채점하며, 맞게 적은 자료 수집 방법에는 각 1점을, 틀리게 적은 자료 수집 방법에는 각 0점을 부여함. 질문별 만점은 4점임.

- ① ㉠은 '1점'이다.
- ② A와 달리 B는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이다.
- ③ B와 달리 C는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 ④ C에 비해 D는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 ⑤ D에 비해 A는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활용하기 어렵다.

[심층 분석] 자료 수집 방법

[정답] ①

[Comment]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번 문항의 유형을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주제에 적용하여 출제된 문항이다. '채점 결과'에 빈칸을 뚫어 자료를 더 복잡해 보이게 만든 대신, 해당 기출 문항과 달리 만점에 해당하는 '4점'을 제시함으로써 난도를 조절하였기 때문인지 오답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 11번 문항보다도 오답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분석]

제시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별 맞는 답변이 무엇인지를 표(질: 질문지법, 실: 실험법, 면: 면접법, 참: 참여 관찰법)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질	면	실	참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생활하며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펴보는가?	×	×	×	○
인위적 통제 상황에서 처치로 인한 변화를 관찰하는가?	×	×	○	×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가?	○	○	×	×
방법론적 일원론을 기초로 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가?	○	×	○	×

(○: 예, ×: 아니오)

네 번째 질문인 '방법론적 일원론을 기초로 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채점 결과가 '4점'이므로, A, B는 각각 면접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고 C, D는 각각 질문지법, 실험법 중 하나이다.

두 번째 질문인 '인위적 통제 상황에서 처치로 인한 변화를 관찰하는가?'에 대한 채점 결과가 '2점'이기 위해서는 해당 질문에 대해 '예'라는 답변이 맞는 유일한 자료 수집 방법인 실험법은 '예'로 분류된 A, B, C 중 하나여야 한다. 위 문단에 따르면, C, D가 각각 질문지법, 실험법 중 하나이므로, C는 실험법이고, 이에 따라 D는 질문지법이다.

C는 실험법, D는 질문지법이므로, 세 번째 질문인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가?'에 대해 C는 틀리게, D는 맞게 작성되었다. 따라서 세 번째 질문인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가?'에 대한 채점 결과가 '3점'이기 위해서는 해당 질문에 대해 A, B가 모두 맞게 작성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A는 면접법, B는 참여 관찰법이다.

정리하면, A는 면접법, B는 참여 관찰법, C는 실험법, D는 질문지법이다.

[정답 풀이]

① 네 번째 질문인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생활하며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펴보는가?'에 대해 D만 맞게 작성되었으므로, ㉠은 '1점'이다.

[오답 풀이]

- ② 참여 관찰법은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이지 않다.
- ③ 실험법은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지 않는다.
- ④ 질문지법에 비해 실험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 ⑤ 질문지법에 비해 면접법은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활용하기 용이하다.

관련 기출 1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번]

다음은 일탈 이론 A~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와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3점]

※ 질문에 따라 A, B, C, D를 '예', '아니오'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칸에 적으시오.

질문	예	아니오	채점 결과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B, C	A, D	3점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B, D	A, C	2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B, D	A, C	1점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가?	B, C	A, D	3점

* 질문별로 채점하며, 맞게 적은 이론에는 각 1점을, 틀리게 적은 이론에는 각 0점을 부여함. 질문별 만점은 4점임.

- ① A의 사례로 신입 사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회사 선배들과 어울리면서 죄의식이 사라져 부정행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② B의 사례로 한탕주의로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을 보고 부자가 되고 싶은 실업자가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③ C의 사례로 학교 폭력 가해 사실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스스로를 문제아로 인식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④ B와 달리 D는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본다.
- ⑤ D와 달리 A는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본다.

[정답]

관련 기출 1 | ①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우리나라와 동일한 사회 보장 제도 A~C를 운영하고 있는 갑국에서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A에 해당하는 제도로 고용 보험 기금을 통해 실직을 한 청년에게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B에 해당하는 제도로 청년 기초 수급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C에 해당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표는 갑국 20대 청년 실업자 중 A~C 수혜자와 비(非)수혜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중복 수혜자 중 A,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와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는 각각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의 2배이다.

(단위: %)

A 수혜자	B 수혜자	C 수혜자	3중 수혜자	비(非)수혜자
70	19	12	2	8

* 중복 수혜자: A, B, C 중 2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

** 3중 수혜자: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 비(非)수혜자: A, B, C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

- ① 중복 수혜자 수는 비(非)수혜자 수보다 많다.
- ②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공공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의 4배이다.
- ③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 수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보다 적다.
- ④ 비(非)수혜자 수는 중복 수혜자 중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의 2배이다.
- ⑤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중복 수혜자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보다 많다.

[심층 분석]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정답] ⑤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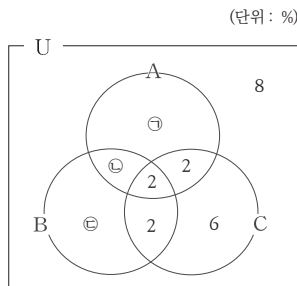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문항을 3중 벤 다이어그램 내의 모든 칸을 채워야 풀이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문항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연도'나 '지역' 구분이 추가되거나 '가중 평균'이 가미되는 식으로 난도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자료 분석]

자료의 첫 번째 문단 내용에 따르면, A는 사회 보험, B는 공공 부조, C는 사회 서비스이다.

자료의 두 번째 문단 내용에 따르면, 중복 수혜자 중 A,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와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는 각각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의 2배이므로, 20대 청년 실업자 중 A,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중복 수혜자의 비율은 각각 20대 청년 실업자 중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의 비율, 즉 20대 청년 실업자 중 3중 수혜자의 비율(2%)의 2배이다. 따라서 20대 청년 실업자 중 A,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중복 수혜자의 비율과 20대 청년 실업자 중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중복 수혜자의 비율은 각각 4%이다. 20대 청년 실업자 중 C 수혜자의 비율이 12%이므로, 20대 청년 실업자 중 C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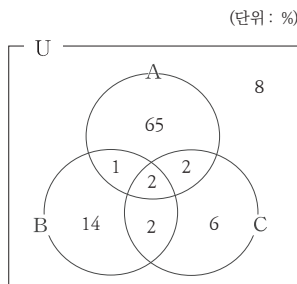
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20대 청년 실업자 중 인원의 비율을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대 청년 실업자 중 A의 수혜자의 비율이 70%이므로, $\text{㉠} + \text{㉡} + 2 + 2 = 70$ 이다. 따라서 $\text{㉠} + \text{㉡} = 66$ 이다. 또한, 20대 청년 실업자 중 A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30%이므로, $16 + \text{㉢} = 30$ 이다. 따라서 $\text{㉢} = 14$ 이다.

20대 청년 실업자 중 B 수혜자의 비율이 19%이므로, $\text{㉣} + \text{㉤} + 2 + 2 = 19$ 이다. 따라서 $\text{㉣} + \text{㉤} = 15$ 인데, $\text{㉢} = 14$ 이므로, $\text{㉣} = 1$ 이다. $\text{㉠} + \text{㉡} = 66$ 이므로, $\text{㉠} = 65$ 이다.

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20대 청년 실업자 중 인원의 비율을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답 풀이]

- ⑤ 사회 서비스는 C,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공공 부조인 B이다. C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전체의 6%)는 중복 수혜자 중 B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전체의 5%)보다 많다.

[오답 풀이]

- ① 중복 수혜자 수(전체의 7%)는 비(非)수혜자 수(전체의 8%)보다 적다.
 ② 사회 보험은 A, 공공 부조는 B이다. A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전체의 65%)는 B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전체의 14%)의 4배가 아니다.
 ③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 보험인 A와 공공 부조인 B이다.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 수(전체의 93%)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 즉 A, B 중 1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전체의 86%)보다 많다.
 ④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 보험인 A이다. 비(非)수혜자 수(전체의 8%)는 중복 수혜자 중 A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전체의 5%)의 2배가 아니다.



관련 기출 1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3점]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유형 A~C 중 A는 B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C는 A와 달리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가), (나) 지역의 모든 가구는 A~C 중 한 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역별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A와 B의 중복 수혜 가구	10	20
A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6	9
B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50	45

* (가)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2%)이, (나)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5%)이 포함되어 있다.

- ① A는 B, C와 달리 사전 예방적 목적을 가진다.
 ② B는 A, C와 달리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③ C는 A, B와 달리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④ 사회 보험과 사회 서비스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공공 부조의 혜택은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높다.
 ⑤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사회 서비스의 혜택은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가), (나) 지역이 같다.

[정답]

관련 기출 1 | 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A는 행인과 다툼을 겪고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A는 갑국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모국어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경찰은 갑국 언어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업무 지침에 따라 A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갑국 국민과 달리 A는 정당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없었다.
- 을국 국민인 B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사용해 왔다. B는 학교에 입학하려 하였으나 관할 관청은 화재 규정을 근거로 휠체어가 대피에 방해가 된다고 입학허가하지 않았다. B의 부모는 지속적으로 청원을 냈고 그 결과 을국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제정되어 B는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① A는 주류 집단의 제도적 배제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 ② B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았다.
- ③ B와 달리 A는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 ④ 갑국의 사례에는 역차별의 문제가 나타난다.
- ⑤ 을국의 사례에는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가 나타난다.

【심층 분석】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정답】 ①

【Comment】

- ✓ 본 문항은 정답이 선명해서 오답률은 낮았으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이지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은 아닌 사례'를 다른 을국의 사례와 ②번 선택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추후 <보기>를 활용한 합답형 문항에서 변별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을 만한 내용 요소이다.

【정답 풀이】

- ① A는 갑국 언어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업무 지침으로 인해 갑국 국민과 달리 정당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A는 주류 집단의 제도적 배제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오답 풀이】

- ②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은 차별받는 집단에 취업, 대학 입학, 정부 발주 공사의 입찰 등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법이 아니라, 차별받던 사회적 소수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우 받도록 하는 법이므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아니다. 따라서 B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 ③ B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생긴 장애라는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 ④ 갑국의 사례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방침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집단이 도리어 받게 되는 차별인 역차별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을국의 사례에는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번

다음 자료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임.)

〈장면 #2〉
갑 : (반가워하며) 오는 길에 아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느라 늦었어.
을 : (화를 내며) 널 기다리느라 1시간이나 버렸잖아!
갑 : 시간을 버렸다고? 우리 지금 만났잖아. 우리 문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시간보다는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거든.
을 : 너희 나라는 시간 개념이라는 게 없네.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달리 너희 나라는 후진국인 거야.

교사 : 지난 시간 〈장면 #1〉에서는 자기 나라 문화를 비하하며 다른 나라 문화를 동경했던 병의 사례로 A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 〈장면 #2〉에 나타난 을의 태도인 B는 갑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는 틀림이 아니기에 C를 통해 갑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A는 자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 ② B는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 ③ C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A, B와 달리 C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 ⑤ B, C와 달리 A는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심층 분석】 문화의 이해

【정답】 ④

【Comment】

- ✓ 본 문항 자체는 난도가 매우 낮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학습 자료 → 교사의 해설' 형태의 자료 구성을 연계한 새로운 문항이 출제된다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7번 문항처럼 고난도 문항으로 환골탈태하여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자료 분석】

A는 문화 상대주의, B는 자문화 중심주의, C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정답 풀이】

- ④ 자문화 상대주의, 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오답 풀이】

- ① 문화 상대주의는 자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
- ②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 ③ 문화 상대주의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
- ⑤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관련 기출 1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7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일탈 행동 사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고자 했던 갑은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였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어려워지자 좌절감에 빠진 갑은 학교를 중퇴한 친구들을 모아 일확천금을 노리며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청소년기를 보냈다. 성인이 된 갑은 중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출소 후 교도소 직업 훈련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로 취업하려 했으나 범죄 이력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에 갑은 자신이 어차피 범죄자이고, 범죄라는 굴레에 얽매인 삶으로부터 벗어나 수 없다고 여겨 범죄 조직에 가담하였다.

물질적 성공에 대한 욕구가 컸던 을은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 부정행위 방법도 서슴치 않았다.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 한 회사에 취업한 을은 승진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했다. 그러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매번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자, 을은 더 이상 이 회사에서는 승진 기회가 없음을 알고 체념하였다. 그러던 중 회사 기밀을 넘기면 거액을 주겠다는 경쟁 회사 측의 제의에 응해 회사 기밀을 훔쳤다.

<교사의 해설>

제시된 사례에서 청소년 시기 갑의 일탈 행동은 A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출소 후 갑의 일탈 행동은 C가 아니라 B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을의 취업 후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A, B, C 중 ㉠이 적합합니다.

- ① ㉠은 A이다.
- ② B는 일탈 행동을 학습하지 않은 사람은 일탈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③ C는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중시한다.
- ④ A는 B와 달리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 ⑤ A는 B, C와 달리 1차적 일탈에 대한 원인 규명보다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정답]

관련 기출 1 | ①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다음 글에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세계화의 영향은 이중적이다. 우선, 세계화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로를 택하게 했다. 무역 자유화는 선진국을 고부가 가치 산업에, 개발 도상국을 저부가 가치 산업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개발 도상국이 선진국에 종속되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다. 한편, 세계화는 (가) 선진국의 경우 자본가들은 생산 비용이 낮은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며 이익을 얻었지만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을 겪었다. 개발 도상국의 경우 소득 증가의 혜택은 자산가 및 고숙련 노동자에게 집중되었고 저숙련 노동자에게는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 ① 국가 내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 ②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유발하였다
- ③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았다
- ④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경제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 ⑤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위계적인 분업 체계를 형성하였다

[심층 분석] 현대 사회의 변화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정답] ①

[Comment]

- ✓ 행간의 의미를 읽지 못하였으면 적당한 정답이 보이지 않았을 문항이다. “이중적”과 “한편”이라는 표현이 글의 구조 형성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정답 선택이 수월하였을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이렇게 문해력을 요구하는 사례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 ✓ ‘국가 간 차원 → 국가 내 차원’ 순의 내용 흐름은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문항의 자료 속 을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분석]

자료는 세계화의 영향은 이중적이라는 필자의 주장으로 시작되며, 여기서 ‘이중(二重)’은 ㉠ ‘우선’과 ‘한편’ 사이의 내용과 ㉡ ‘한편’ 이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가)에는 ㉡에 대한 요약문으로 적절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풀이]

- ① ㉡는 세계화가 국가 내 불평등을 증가시켰음을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므로, ‘국가 내 불평등을 증가시켰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유발하였다’는 ㉡의 ‘선진국의 경우’에 관한 내용에는 부합한다. 하지만 ㉡의 ‘개발 도상국의 경우’에 관한 내용에서는 노동자의 임금 ‘하락’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없으므로,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유발하였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의 문맥과 거리가 멀므로,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경제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의 문맥과 거리가 멀므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경제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위계적인 분업 체계를 형성하였다.’는 ㉡가 아니라 ㉠에 관한 내용으므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위계적인 분업 체계를 형성하였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관련 기출 1 |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정보화 시대에는 사회 불평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과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확대되면 교육이나 문화에서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즉, 정보 기술은

(가)

을: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사회 불평등은 심화될 것입니다. 정보 부국과 정보 빈국이라는 말이 존재하듯이 오늘날 국제적 상황에서 정보 격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는 국내적 상황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보편적 접근권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정보 기술은

(나)

왜냐하면 한 국가 내에서 정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부를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서열화된 사회 구조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① (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② (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 ③ (나): 상대적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④ (나): 정보 부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⑤ (나): 계층에 따른 기존의 소득 격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정답]

관련 기출 1 | 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빈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이 빈곤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간략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전체 인구 대비 30%가 ㉠빈곤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최소한의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10%의 인구가 ㉡빈곤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한 사회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고려하여 □□지역 인구의 약 20%가 ㉢빈곤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① ㉠과 달리 ㉡은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 ② ㉢과 달리 ㉠은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 ③ ㉢과 달리 ㉡은 각자의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에 비해 ㉠, ㉢은 경제 성장 이전의 저개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 ⑤ ㉠, ㉡과 달리 ㉢은 전체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심층 분석]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정답] ⑤

[Comment]

- ✓ ①번 선택지에서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의미가 모호하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릴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기를 권장한다. 다만 '절대적 빈곤에 비해 상대적 빈곤은 소득 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 정도가 높은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설명은 옳다.
- ✓ 오답 중에서는 ②번 선택지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②번 선택지는 ㉠을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주관적 빈곤으로 오인하였거나,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가 상대적 빈곤과 구분되는 절대적 빈곤의 특징이라고 잘못 생각하였을 때 고를 가능성이 큰 오답이다.

[자료 분석]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기준으로 파악한 ㉠에 해당하는 빈곤 유형은 절대적 빈곤이다. '최소한의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파악한 ㉡에 해당하는 빈곤 유형은 상대적 빈곤이다. '한 사회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고려하여 파악한 ㉢에 해당하는 빈곤 유형은 상대적 빈곤이다. 정리하면, ㉠, ㉡에 해당하는 빈곤 유형은 절대적 빈곤, ㉢에 해당하는 빈곤 유형은 상대적 빈곤이다.

[정답 풀이]

- ⑤ 절대적 빈곤과 달리 상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 ㉡과 달리 ㉢은 전체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답 풀이]

- ① ㉠과 ㉡은 모두 절대적 빈곤이므로, 해당 선택지의 내용은 옳지 않다.
- ②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과 ㉡은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 ③ 절대적 빈곤도 상대적 빈곤도 각자의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 ㉡도 각자의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 ④ 상대적 빈곤에 비해 절대적 빈곤은 경제 성장 이전의 저개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에 비해 ㉠, ㉡은 경제 성장 이전의 저개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갑국과 을국에서 t 년 대비 $t+30$ 년의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t 년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15~64세 인구)의 비율은 을국이 45%로 갑국의 0.75배이고, 을국의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는 같으며,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0.25배이다. 단,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인구는 변함없다고 가정한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는 아래의 <조건>으로만 판단한다.

구분	갑국	을국
유소년 부양비	증가	불변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	불변	감소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sim1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유소년(노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text{총부양비} = \text{유소년 부양비} + \text{노년 부양비}$$

<조건>

-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유소년 인구와 정(+)의 관계에 있다.
-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는 노년 인구와 정(+)의 관계에 있다.

- ① t 년에 노령화 지수는 갑국보다 을국이 크다.
- ② $t+30$ 년에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50보다 클 것이다.
- ③ $t+30$ 년에 을국의 총부양비는 120보다 클 것이다.
- ④ t 년 대비 $t+30$ 년에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갑국에서는 늘어날 것이고 을국에서는 변함없을 것이다.
- ⑤ t 년 대비 $t+30$ 년에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가 갑국에서는 낮아질 것이고 을국에서는 변함없을 것이다.

[심층 분석] 현대 사회의 변화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정답] ③

[Comment]

- ✓ 자료의 정보량과 선택지의 구체성 측면에서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을 발전시킨 문항으로 볼 수 있다.
- ✓ 오답 중에서는 ④번 선택지의 선택 비율이 높았다. ④번 선택지는 <조건>의 '유소년 인구'를 '유소년 부양비'로 착각한 경우에 고를 수 있는 오답이기는 하나, 마지막 문항 특성상 '찍기'의 비율도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인구는 변함없다고 가정한다."는 갑국과 을국 각국에서 전체 인구가 변함없다는 가정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t 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나 을국의 전체 인구가 같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본 문항의 경우 이가 문제화되지 않았지만, 사만다 Final 모의고사 1회 20번과 같이 해당 내용을 간과했다면 오답을 고르게 되는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료 분석]

t년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을국이 45%로 갑국의 0.75배이므로, t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60(=45 \div 0.75)\%$ 이다.

t년에 을국의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가 같으므로, t년에 을국은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과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이 동일하다. 따라서 을국은 t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과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이 45%로 동일하며,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10%이다.

t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0.25배인데, t년에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100(=(45/45) \times 100)$ 이므로, t년에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25이다. t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60%이므로, t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15%이다. 따라서 t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25%이다.

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t년의 국가별 인구 구성 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구분	갑국		을국	
	t년	t+30년	t년	t+30년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	25		10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	60		45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	15		45	

갑국의 경우, t년 대비 t+30년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이 불변할 것이므로, t+30년의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60%일 것이다. 또한 t년 대비 t+30년에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할 것인데 전체 인구 중 피부양 인구(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의 비율은 40%로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t년 대비 t+30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증가할 것이고,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t+3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15 + a)\%$, 갑국의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25 - a)\%$ 일 것이라고 가정하자. (단, $0 < a \leq 25$)

을국의 경우, t년 대비 t+30년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이 감소할 것이므로, t+30년의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이 $(45 - b)\%$ 일 것이라고 가정하자. 또한 t년 대비 t+30년에 유소년 부양비가 불변할 것이므로, 앞가정에 따르면 t+30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도 $(45 - b)\%$ 일 것이고,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10 + 2b)\%$ 일 것이다. (단, $0 < b < 45$)

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예측에 따른 국가별 · 연도별 인구 구성 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구분	갑국		을국	
	t년	t+30년	t년	t+30년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	25	$25 - a$	10	$10 + 2b$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	60	60	45	$45 - b$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	15	$15 + a$	45	$45 - b$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인구는 변함없다고 가정하므로, t년과 t+3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가 100n명으로 동일하고, 을국의 전체 인구가 100m명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이를 바탕으로 예측에 따른 국가별 · 연도별 인구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 $n > 0, m > 0$)

(단위: 명)

구분	갑국		을국	
	t년	t+30년	t년	t+30년
노년 인구	$25n$	$(25 - a)n$	$10m$	$(10 + 2b)m$
부양 인구	$60n$	$60n$	$45m$	$(45 - b)m$
유소년 인구	$15n$	$(15 + a)n$	$45m$	$(45 - b)m$

[정답 풀이]

③ 예측에 따르면 t년 대비 t+30년에 을국에서 부양 인구(총부양비 계산식에서 분모)는 감소할 것이고, 피부양 인구(총부양비 계산식에서 분자)는 증가할 것이므로, 총부양비는 증가할 것이다. t년에 을국의 총부양비는 약 $122.2(=(55/45) \times 100)$ 이므로, t+30년에 을국의 노년 부양비는 122.2보다 클 것이다. 따라서 t+30년에 을국의 총부양비는 120보다도 클 것이다.

[오답 풀이]

- t년에 노령화 지수는 갑국이 약 $166.7(=(25/15) \times 100)$, 을국이 약 $22.2(=(10/45) \times 100)$ 이다. 따라서 t년에 노령화 지수는 갑국보다 을국이 작다.
- 예측에 따르면 t년 대비 t+30년에 갑국에서 부양 인구(노년 부양비 계산식에서 분모)는 불변할 것이고, 노년 인구(노년 부양비 계산식에서 분자)는 감소할 것이므로, 노년 부양비는 감소할 것이다. t년에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약 $41.7(=(25/60) \times 100)$ 이므로, t+30년에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41.7보다 작을 것이다. 따라서 t+30년에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50보다도 작을 것이다.
- <조건>에 따르면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유소년 인구와 정(+)의 관계에 있다. 예측에 따르면 t년 대비 t+30년에 유소년 인구는 갑국에서는 증가할 것이고 을국에서는 감소할 것이므로, t년 대비 t+30년에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갑국에서는 늘어날 것이고 을국에서는 줄어든 것이다.
- <조건>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는 노년 인구와 정(+)의 관계에 있다. 예측에 따르면 t년 대비 t+30년에 노년 인구는 갑국에서는 감소할 것이고 을국에서는 증가할 것이므로, t년 대비 t+30년에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가 갑국에서는 낮아질 것이고 을국에서는 높아질 것이다.



관련 기출 1 |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조건>

1. 갑국 t 년의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는 부양 인구(15~64세 인구)의 50%이고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의 3배이다.
2. A 시기는 t 년 대비 $t+30$ 년으로, B 시기는 $t+30$ 년 대비 $t+50$ 년으로 인구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나타낸다.
3. A 시기와 B 시기 동안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다.
4. 세대 간 갈등의 정도는 노년 부양비에 비례하고, 경제 성장 동력은 부양 인구에 비례한다.

<A 시기와 B 시기의 인구 변화 양상 예측>

구분	A 시기	B 시기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	감소	감소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	변화 없음	감소
유소년 부양비	감소	증가

$$* \text{유소년(노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text{총부양비} = \text{유소년 부양비} + \text{노년 부양비}$$

$$*** \text{피부양 인구} = \text{유소년 인구} + \text{노년 인구}$$

- ① A 시기에는 피부양 인구의 증가로 경제 성장 동력이 저하될 것이다.
- ② B 시기에는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 ③ 세대 간 갈등은 B 시기보다 A 시기에 더 심각할 것이다.
- ④ t 년의 총부양비는 100보다 작고, $t+30$ 년의 총부양비는 100이다.
- ⑤ $t+50$ 년의 노년 인구는 t 년보다 많고 $t+30$ 년보다 적을 것이다.

[정답]

관련 기출 1 | ②

